연구보고 268 / 1992. 12

농촌여성의 의식변화와 역할에 관한 연구

충남지역 4개 마을을 중심으로

김 종 숙 책임연구원
정 명 채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빈 면

머 리 말

최근 우리 나라의 급속한 산업화는 도시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농촌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특히, 도시산업의 발전에 따른 농촌 청장년의 이농 증가는 농촌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한 농촌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를 증대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겸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여성의 경제활동은 양과 질에서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농촌 여성들은 농업 종사자로서의 역할이나 경제활동이 계속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에 상응하는 지위와 역할은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21세기 농촌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지위 향상과 그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연구는 농촌 여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현지농가조사를 통해서 농촌 여성의 영농 참여실태와 농업에 대한 가치관을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사업은 당연구원에서 1985년부터 수행해 온「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의 4개 조사지역을 표본으로 조사연구한 사례적 연구이므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의 더 넓고 깊은 연구들이 이루어질수 있기를 기대한다.

1992. 12

院長 許信行

빈 면

목 차

제 1 장 서 론

1. 문제의 제기 ····· 1
2.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 3
3. 연구 범위와 연구방법 ····· 5

제 2 장 우리 나라 농촌 여성의 위치

1. 농촌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 증대 ····· 7
2. 농촌 여성의 가사노동과 농업노동 ····· 11
3. 농촌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 13

제 3 장 농촌 여성의 생활실태

1. 조사지역의 사회·경제구조 ····· 16
2. 조사지역 농촌 여성의 농가유형별 특성 ····· 29
3. 조사지역 농촌 여성의 생활실태 ····· 37

제 4 장 농촌 여성의 의식 변화

1. 농촌 여성의 의식 변화 ····· 53
2. 농촌 여성의 농업 특성 평가 ····· 67
3. 농촌 여성의 농업정책에 대한 요망사항 ····· 73
4. 영농에 적극적인 여성농민상 ····· 76

제 5 장 농촌 여성의 의식 변화에 따른 역할구조

1. 농촌 여성의 역할체계 ····· 78
2. 역할구조의 분석방법 ····· 80
3. 가사 의사결정과 부인의 참여도 ····· 82
4. 영농의사 결정과 부인의 참여도 ····· 90
5. 농촌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유형 ····· 101

제 6 장 요약 및 결론 ····· 105

표 목 차

제 2 장

표 2- 1 농림어업 취업자의 성별 구성비의 변화 ····· 8
표 2- 2 15세 이상 여자 취업별 농가인구, 1990 ····· 8
표 2- 3 성별 농가 노동투하량 추이 및 구성 ····· 9
표 2- 4 농촌 여성의 농번기 농업노동시간의 변화 추이 ····· 10
표 2- 5 작물별 농가 연간 노동투하 비율 ····· 10
표 2- 6 농촌 여성의 농번기 노동시간의 변화 추이 ····· 12
표 2- 7 농가 주부의 연령별 가사노동의 분담 현황 ····· 12

제 3 장

표 3- 1 조사지역 개요 ····· 17
표 3- 2 마을 주민의 경제활동(근교마을) ····· 19
표 3- 3 농기계 보급대수(근교마을) ····· 19
표 3- 4 마을 주민의 경제활동(평야마을) ····· 21
표 3- 5 농기계 보급대수(평야마을) ····· 22
표 3- 6 마을 주민의 경제활동(중간마을) ····· 25
표 3- 7 농기계 보급대수(중간마을) ····· 25
표 3- 8 마을 주민의 경제활동(산간마을) ····· 28
표 3- 9 농기계 보급대수(산간마을) ····· 28
표 3-10 조사농가 부인의 연령별 구성 ····· 30
표 3-11 조사농가 부인의 학력별 구성 ····· 30
표 3-12 조사농가 남편의 학력별 구성 ····· 31

표 3-13 조사농가 부인의 경영주와의 관계 ·····31
표 3-14 군부의 가족형태 비율 ·····33
표 3-15 조사농가의 가족유형(재촌) ·····33
표 3-16 조사농가의 가구유형 ·····33
표 3-17 조사농가의 전·겸업별 구성 ·····34
표 3-18 조사농가의 작부체계 ·····35
표 3-19 조사농가의 영농 종사자 수 ·····35
표 3-20 조사농가의 경작규모별 구성 ·····36
표 3-21 조사농가의 수도작 규모별 구성 ·····37
표 3-22 조사농가의 전작 규모별 구성 ·····37
표 3-23 농가 부인의 농사일 참여 정도 ·····38
표 3-24 농가 부인의 결혼전 농사경험 유무 ·····39
표 3-25 농가 부인의 농업노동 참여도 ·····41
표 3-26 농가 부인의 연령별 농업노동 참여도 ·····41
표 3-27 농가 부인의 경영규모별 농업노동 참여도 ·····42
표 3-28 농가 부인의 논 농사의 작업 참여 내용 ·····43
표 3-29 농가 부인의 밭 농사의 작업 참여 내용 ·····44
표 3-30 농가 부인의 품앗이 및 피고용 농업노동 ·····45
표 3-31 성별 품앗이 및 피고용 농업노동 ·····46
표 3-32 농가 부인의 농산물 판매경험 여부 ·····48

제 4 장

표 4- 1 농가 부인의 자기 인식 ·····55
표 4- 2 농가 부인의 연령별 자기 인식 ·····55
표 4- 3 농가 부인의 영농규모별 자기 인식 ·····56
표 4- 4 농가 부인의 학력별 자기 인식 ·····56
표 4- 5 농가 부인의 농업에 대한 만족도 ·····57
표 4- 6 농촌 부녀자 농업 만족도 ·····57

표 4- 7 농가 부인의 연령별 농업 만족도 ····· 58
표 4- 8 농촌 주민의 농업 만족도 ····· 59
표 4- 9 연령별 농촌 부녀자 농업 만족도 ····· 59
표 4-10 농가 부인의 영농규모별 농업 만족도 ····· 60
표 4-11 영농규모별 농촌 부녀자 농업 만족도 ····· 61
표 4-12 학력별 농촌 부녀자 농업 만족도 ····· 62
표 4-13 농가 부인의 학력별 농업 만족도 ····· 62
표 4-14 영농형태별 농촌 부녀자 농업 만족도 ····· 63
표 4-15 농가 부인의 농촌 미래관 ····· 64
표 4-16 농가 부인의 연령별 농촌 미래관 ····· 64
표 4-17 연령별 농촌에 대한 전망 ····· 65
표 4-18 농가 부인의 학력별 농촌 미래관 ····· 66
표 4-19 학력별 농촌에 대한 전망 ····· 66
표 4-20 농가 부인의 영농규모별 농촌 미래관 ····· 66
표 4-21 영농규모별 농촌에 대한 전망 ····· 67
표 4-22 농촌 여성이 평가하는 농업의 장점 ····· 68
표 4-23 농촌 여성이 평가하는 농업의 단점 ····· 68
표 4-24 타직종과 비교한 농업수입에 대한 평가 ····· 70
표 4-25 농촌 주민의 농업소득에 대한 만족도 ····· 70
표 4-26 농가 부인의 영농 애로사항 ····· 71
표 4-27 농가 부인의 농업 승계의사(아들) ····· 71
표 4-28 농가 부인의 농업 승계의사(딸) ····· 72
표 4-29 농촌 여성의 대정부 건의사항 ····· 74
표 4-30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가 가장
힘써야 할 일, 1984 ····· 75
표 4-31 농사에 적극적인 부인의 농가경영 개황 ····· 77

제 5 장

표 5- 1 부인 참여점수 및 공동 참여점수 산출 기준 ····· 81
표 5- 2 금전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 83
표 5- 3 금전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점수(연령별) ····· 84
표 5- 4 금전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점수(학력별) ····· 85
표 5- 5 금전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점수(영농규모별) ····· 86
표 5- 6 생활물자 구입에 관한 의사결정 ····· 87
표 5- 7 생활물자 구입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점수 ····· 87
표 5- 8 자녀교육에 관한 의사결정 ····· 89
표 5- 9 자녀교육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점수 ····· 89
표 5-10 농사일정에 관한 의사결정 ····· 91
표 5-11 농사일정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점수 ····· 91
표 5-12 품종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 ····· 93
표 5-13 품종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점수 ····· 93
표 5-14 영농자재 구입에 관한 의사결정 ····· 95
표 5-15 영농자재 구입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점수(연령별) ····· 95
표 5-16 노동력 조달에 관한 의사결정 ····· 97
표 5-17 노동력 조달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점수 ····· 97
표 5-18 농산물 판매에 관한 의사결정 ····· 98
표 5-19 농산물 판매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점수 ····· 99
표 5-20 농지 구입과 매각에 관한 의사결정 ····· 99
표 5-21 농지 구입과 매각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점수 ····· 100
표 5-22 항목별 의사결정유형, 1992 ····· 101
표 5-23 항목별 의사결정유형, 1984 ····· 103
표 5-24 농업노동 참여도별 영농의사결정 참여점수 ····· 104

제 1 장

서 론

1. 문제의 제기

우리 나라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에서 농촌 청장년이 도시로 대량 유출됨에 따라 농업생산에 농촌 여성의 참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농촌 여성의 취업율은 1960년에 34.7%이었던 것이 1979년에는 54.2%로 급격히 증대되었고, 이는 같은 해 도시 여성의 35.9%를 훨씬 상회하는 숫자였다.

이와 같은 여성의 영농 참여는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의 농업경영형태가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가족농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소농규모의 농가경제를 가족노동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영농 참여는 당연한 것이며,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남자 노동력의 도시 유출로 더욱 가속화된 것이다.

농촌 여성의 영농 참여는 1980년대 이후 농업노동의 고용조건이 악화됨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농가경제가 악화되어 가자 농촌 여성들은 영농의욕이 감퇴되면서도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과중한 노동을 투하

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혼 여성들의 농촌결혼 기피현상을 불러 일으켜 농업재생산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농촌 여성들이 과중한 농업노동을 하면서 영농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는 농업보조자로서 단순농업노동만을 제공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 농업종사자로서의 실제적인 역할에 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열악하기 때문에 농촌 여성 스스로가 영농 종사자로서의 인식은 희박하게 되며, 주체적인 영농인이 될 수 있는 자질을 키우기 위한 동기가 부족하게 된다.

농촌 여성이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의 이중노동을 수행하면서도 농가경제가 향상되지 못하는 우리 나라 농촌현실에서 여성은 농촌과 농업에 대해서 남성 이상의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농촌 여성의 주부로서의 역할과 농업 종사자로서의 이중역할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의 취업주부와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도시에 비해 다른 점은 농촌사회는 가부장적 요소가 강한 가족제도하에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이 가족간에 분담되지 못하고 또한 가사노동을 사회화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여성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또한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농번기에는 농업노동이 과중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 도시 취업 여성보다 더 힘이드는 작업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 여성의 영농 참여는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기 보다는 농업의 상대적 불리성으로 인한 농가경제의 궁핍으로부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면이 크다. 따라서 비자발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농업경영에 적극적인 의욕을 갖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지금 우리 농촌은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여성의 영농 참여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도시 근로자와의 균형있는 생활을 위해 농가소득은 농외소득에의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농업생산의 담당자로서 여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져야 할 때이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 종사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분명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농촌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싯점이다. 농촌 여성을 총체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이나 또는 농가주부로 파악하는 것에서 벗어나 여성농민으로서 정체감(아이덴티티)을 부여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때 비로소 21세기 농업을 담당해 나가야 할 존재로서 농촌 여성상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농촌 여성의 영농 참여 증대에 따른 의식 변화와 농가내의 역할 구조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농촌 여성 스스로가 농업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의 역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평가하느냐가 이 연구의 주요한 관심이다. 이는 농촌여성의 자기평가와 더불어 농촌 여성의 사회의식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농촌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사회 전체가 지원해야 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2.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농촌 여성의 농업 종사자로서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여성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농촌 여성에 관한 연구는 20여년 동안 소수의 연구자들의 관심에 의해 지속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농촌 여성의 역할의 다양성과 과중성, 그리고 역할과 지위의 불일치, 농가빈곤과 가부장문화 속에서의 이중억압등이 주로 다루어진 연구들이었다. 이러한 접근은 대개 농촌여성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생산담당자로서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때로는 여성의 생산노동 자체를 새로운 역할

또는 부수적 역할로 취급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 농촌 여성문제는 전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농민층의 계층 구성상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계층별 농촌 여성문제를 포착할 수가 없었다(김주숙, 198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 여성이 농업생산자로서 영농에 참여하고 있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현재의 농업과 농촌의 여건하에서 농촌 여성이 처해 있는 위상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농촌 여성이 농업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농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식과 역할을 분석하는 일은 여성농민이 직업인인 농업종사자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영농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제2장에서 1970년대 이후 농업과 농촌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와 그에 따른 농촌여성의 생산활동과 재생산활동의 실태를 통계자료를 통해서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농촌 여성의 위치를 규명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나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농업노동의 여성화와 농업노동력의 질적 변화에 따른 농업노동의 여성화, 그리고 농가경제의 악화에 따른 겸업화의 증가로 여성의 노동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례지역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농촌 여성들의 생활실태를 살펴보았다. 주된 내용으로는 여성의 영농 참여실태와 농촌 여성의 농외활동실태, 부녀회활동, 농촌 여성의 건강과 복지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농업과 농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 증대와 그에 대한 여성의 의식 변화를 분석하여 농촌 여성의 농업, 농촌관을 규명하였다. 여기서는 주로 여성의 역할 인식, 농업 종사자로서의 만족도, 농업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고, 영농참여의 장단점, 농업노동에 대한 여성 자신의 평가를 조사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였다.

제5장에서는 가족농업 경영하에서의 여성의 역할구조를 검토하고 영

농참여 증대에 따른 역할변화를 규명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가 유형별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도를 분석하고 끝으로 제6장 결론 및 요약에서는 제4장과 5장에서 밝혀진 농촌 여성의 의식 변화와 그에 따른 역할구조의 인식하에 21세기 한국 농업을 담당해 나갈 종사자로서 농촌 여성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농촌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을 제안하였다.

3. 연구 범위와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중에서 농가부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농가부인은 현상적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실질적 노동력"이므로 농가부인은 모두 농업생산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일시적으로는 농가주부 또는 농사 보조자에 속하더라도 농가부인은 총체적으로 여성 농업종사자로 보았다. 따라서 농촌에 거주하더라도 비농가인 경우는 제외하고 농지를 임대하고 있는 농가의 부인이나, 또는 부인이 농업노동자인 경우는 일부 포함되었다.

연구범위는 농촌여성의 의식과 역할의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서 여성개인의 의식 전반에 걸친 것이 아니고 농촌과 농업에 직접 관련된 것에 한정하였다. 역할 규명에 있어서도 영농 참여부분을 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농가부인의 재생산활동 부분은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4개 사례지역의 농가부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의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농촌 여성의 평균적인 개념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를 활용함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농촌 여성상을 구체적으로 그려 내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사례지역의 조사자료는 지역성이나 농가의 계층과 유형에 따른 농촌 여성의 개별적인 여건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성을 갖는다.

연구방법은 현지 농가조사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보충적으로 문헌자료를 참고하였다.

현지 농가조사는 주로 농촌 여성의 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조사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지역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이라는 테마로 1985년부터 조사연구해 오고 있는 4개 마을이며, 조사지역의 전체 농가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표를 이용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시기는 1992년 8월이었으며, 조사농가는 도시 근교마을에서 37호, 평야마을에서 31호, 중간지역마을에서 20호, 산간마을에서 33호로 전체 121호가 조사되었다.

조사자료는 제표 분석을 통해서 지역별, 계층별, 농가 특성별로 비교분석을 하고, 선행 조사자료와의 비교를 통해서 농촌 여성의 의식 및 역할 변화의 내용과 변인을 도출하였다.

제 2 장

우리 나라 농촌 여성의 위치

1. 농촌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 증대

우리 나라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에서 농촌 청장년의 인구가 대량으로 도시에 유출됨에 따라 농촌 여성의 영농 참여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농림업 취업자의 남녀구성을 보면 (표 2-1)과 같이 1967년에는 농림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39.3%이었으나 1970년 이후 계속적인 증가로 현재에는 전체 농림업취업자의 45.0%가 여성 취업자이다. 농업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은 150만명이 되며, 그밖에도 농업과 병행하여 농업외의 겸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 여성인구는 47만으로 전체 농업부문 종사자는 212만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농가내에서 농업노동에 투하되는 시간을 보면 여성의 노동 투하량은 (표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65년 이후 그 비중이 점점 증대하여 1990년 현재에는 농가노동 투하량의 47.3%가 여성의 노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농업생산에서 남성과 거의 같은 정도의 비중으로

여성의 노동이 투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의 영농 참여가 증대된 것은 농촌 노동력의 절대 부족에 따른 노임 상승으로 고용노동이 감소되고, 그 대신 가족노동이 강화된데 주로 기인하는 것이다. (표 2-3)에서 보인 바와 같이 1965년에는 가족노동 안에서 여성의 비율이 30.3%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 현재에는 44.6%로 남자 노동력과 거의 같은 정도로 농업노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농림어업 취업자의 성별 구성비의 변화

구 분	농림어업 취업자	성 별	
		남 성	여 성
1967	4,598	60.7	39.3
1970	4,826	58.4	41.6
1975	5,123	58.5	41.5
1980	4,433	56.2	43.8
1985	3,554	55.7	44.3
1990	3,152	55.0	45.0

자료: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표 2-2 15세 이상 여자 취업별 농가인구, 1990

구 분	전 국	시 부	군 부
15세 이상 농가인구	2,710,856	335,489	2,375,367
농업 종사인구	2,117,137	230,442	1,886,695
그 중 주종사자	1,482,896	143,514	1,339,382
겸업 종사인구	471,259	70,309	400,950
그 중 주종사자	317,280	57,641	259,639
제 1 종 겸업	239,850	28,756	211,094
그중 주종사자	124,121	20,992	103,129
제 2 종 겸업	231,409	41,553	189,856
그중 주종사자	193,159	36,649	156,510

자료: 농수산부, 「농업센서스」, 1990.

표 2-3 성별 농가 노동투하량 추이 및 구성

단위 : 능력환산시간, %

연 도	노 동 투 하 시 간	가족노동		고용(품삯) 노 동		품 앗 이 노 동		합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65	2,584.74	69.7	30.3	82.5	17.5	70.2	29.8	72.5	27.5
1970	2,154.83	66.2	33.8	74.0	26.0	65.2	34.8	67.4	32.4
1975	1,708.47	64.6	35.4	75.0	25.0	69.3	30.7	66.7	33.3
1980	1,814.00	58.3	41.7	57.4	42.6	49.5	50.5	57.4	42.6
1985	2,016.95	59.3	40.7	51.0	49.0	46.9	53.1	57.2	42.8
1990	1,592.69	55.4	44.6	44.6	55.4	36.5	63.5	52.7	47.3

자료: 농수산부, 「농가경제통계연보」, 각년도.

한편 고용노동에 있어서도 여성의 참여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5년경에는 17.5%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에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42.6%에 이르렀으며, 1990년 현재에는 55.4%로서 남자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품앗이 노동에서도 크게 나타나 현재 품앗이 노동의 63.5%가 여성 농업노동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번기에 여성이 농업에 투하한 노동시간은 (표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66년에 3시간 25분에 불과하였으며, 1970년대까지는 농업생산에서 여성은 주로 보조적인 역할을 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9년에는 9시간 46분으로 노동시간은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1986년에는 11시간 21분을 농업노동에 투하하였다. 이는 도시 근로자의 8시간 노동에 비교할 때 과중한 노동량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영농 참여 증대는 1980년대 이후 농업생산이 주년화됨에 따라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농업경영형태가 미곡 위주의 생산방식으로부터 환금성 작물 생산과 축산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농촌에서 농한기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다. 과거에는 농번기의 과중한 노동은 농한기의 휴식으로 농업생산의 연간 노동 배분이 유지될 수 있었으나 비닐하우스 등 기술 보급으로 농한기 겨울철에도 농업생산이 가능하게 되

표 2-4 농촌 여성의 농번기 농업노동시간의 변화 추이

단위: 시간

연 도	1966[1)]	1973[1)]	1975[1)]	1979[2)]	1983[2)]	1986[3)]	1988[2)]
농업노동시간	3 : 25	4 : 39	5 : 31	9 : 46	8 : 54	11 : 21	7 : 52

주: 1) 전승규(1982)의 조사자료.
2) 농촌진흥청「농가주부의 생활시간분석」, 1980, 1984, 1988.
3) 한국여성개발원「농촌여성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 1987.

표 2-5 작물별 농가 연간 노동투하 비율

구분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채소	기타	겸업	농외	계
1967	34.6	15.6	0.3	4.7	3.7	5.2	5.2	11.6	16.6	100.0
1970	35.3	13.6	2.0	5.7	3.5	7.2	7.6	9.1	16.0	100.0
1975	33.0	13.1	1.5	5.3	4.8	9.1	8.2	14.5	10.5	100.0
1980	32.9	5.6	1.1	4.2	2.7	15.7	9.1	19.9	8.8	100.0
1985	29.9	3.0	1.0	3.4	1.7	20.2	10.7	23.1	4.6	100.0
1990	29.8	2.4	1.0	4.4	1.8	24.7	14.2	18.1	3.6	100.0

주: 기타는 특용작물 등의 경종작업에 투하된 노동시간 비율임.
자료: 농수산부, 「농림통계연보」, 각년도.

자 여성농업노동력은 주년노동의 형태로 전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노동 투하량이 증대된 것이다.

이는 작목별로 투하되는 농업노동력의 투하 비율(표 2-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70년대까지는 미곡 생산에 35%가 투하되었었으나 1990년 현재는 29.8%로 감소되고 있다. 한편 채소작물이나 특용작물에 투하되는 노동 투하 비율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90년에는 채소의 경우 25%의 투하율을 보여 미곡과 거의 같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농업생산의 주년화는 농가의 노동력 투하를 절대적으로 증가시킬뿐 아니라 특히 여성의 노동 투하를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채소나 특용작물과 같은 밭 작물의 경우 벼 농사에 비해 여성의 노동 투하 비중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밭 작물의 생산은

여성이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업성 작물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대부분이어서 남성보다 여성의 몫으로 되기 쉽다. 특히, 주년생산이 되고 있는 상업성 작물은 미곡 등의 주곡 생산과는 달리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단계의 작업과 단시간에 많은 노동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괄적인 기계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노임이 높아 임노동의 사용도 어려워서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가족원의 모든 노동력을 동원하게 되므로 농가부인의 노동량이 결과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오늘날 농촌 여성은 농가경제 내에서는 농업노동에 참여함으로써 농가소득을 획득하는 경제주체이며 국가경제 전체로 볼 때는 농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로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2. 농촌 여성의 가사노동과 농업노동

가족농업이 주가 되어 있는 우리 나라 농업구조하에서 농촌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농업생산노동에 참여하면서도 농업재생산활동이라 할 수 있는 가사노동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의 전체 노동부담은 그만큼 증대하게 된다.

최근 여성의 영농 참여가 증대됨에 따라 가사노동시간은 1970년대 초반에 비해 크게 감소되었다.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번기의 가사노동은 1973년에 6시간 40분이던 것이 1986년에는 2시간 58분으로 감소되었다. 이와 같이 가사노동이 감소하게 된 데는 가전제품의 보급에 의한 것도 있으나 같은 해 농업노동이 11시간 21분으로 증가한 것에서 추측되는 바와 같이 농업노동의 증가로 인해 가사노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측면이 크다.

농촌 여성의 대부분은 타산업의 취업 주부와 마찬가지로 가사노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도시 취업 주부와의 차이점은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표 2-6 농촌 여성의 농번기 노동시간의 변화 추이

단위: 시간

구 분	1966[1)]	1973[1)]	1975[1)]	1979[2)]	1983[2)]	1986[3)]	1988[3)]
농업노동	3.25	4.39	5 : 31	9 : 46	8 : 54	11 : 21	7 : 52
가사노동	8.29	6 : 40	5 : 15	4 : 28	4 : 29	2 : 58	4 : 52

주: 1) 전승규(1982).
2) 농촌진흥원, 「농가주부의 생활시간 분석」, 1980, 1984, 1988.
3) 농촌진흥원, 「농촌 여성의 노동 실태에 관한 연구」, 1987.

표 2-7 농가 주부의 연령별 가사노동의 분담 현황

단위: %

구 분	~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	평 균
농가주부	97.8	92.7	97.3	85.9	78.3	91.9(N=1842)
기타가족	2.2	2.3	2.7	14.1	21.7	8.1(N=163)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농촌 여성의 노동 실태에 관한 연구」, 1987.

생활의 장과 노동의 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사노동부분이 농업노동에 할애된다는 점이다. 그 결과는 농가내에서 농업재생산활동이라 할 수 있는 가사노동의 위축과 함께 여성자신의 건강을 포함한 가족 전체의 생활의 질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농업생산이 주년화됨에 따라 농촌 여성의 농업재생산활동의 위축은 연중 지속적인 상태가 되어 농촌 여성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큰 부담을 안게 된다.

농촌 가족형태가 대가족제에서 직계가족 형으로 변화되고 또한 가족원의 도시 유출로 인하여 부양가족이 감소되었으며, 가사노동이 부분적으로 기계화됨에 따라 농촌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은 예전에 비하여 많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표 2-7)과 같이 가사노동의 91.9%는 여전히 농가부인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번기의 농촌여성의 노동부담은 과중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이 영농 종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사노동의 부담을 더욱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 보육시설, 농번기 공동취사 등 가사노동을 사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가정내에서는 가족원끼리 협력하여 가사노동을 분담하도록 여성 스스로의 의식 계발과 생활양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농촌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여성의 영농 참여는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의 농업경영형태가 가족노동을 중심으로하는 소농형태라는 점에 기인된다. 영세한 규모의 농업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노동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여성의 영농 참여는 불가피하다.

특히 최근에는 농촌의 농업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면서 가족노동의 비중이 높아지자 농가의 전계층에서 여성의 영농참여가 증대되고 있다.

즉, 부농의 경우라도 노동력 부족은 농가 주부도 농사 보조자로 참여하게 하고 있으며, 소작농, 영세농은 생계 유지를 위해 과도한 노동에 참여하면서 임노동자화하고 있다(김주숙, 1985).

그러나 농가부인이 농업노동에 참여하는데 따른 노동보수는 농가단위의 수입이자 생활원이 될 뿐 대부분의 농가경제에서 여성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는 없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가 경우에 따라서는 가사노동의 연장으로 인식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농촌 여성은 농가 주부로서의 지위밖에 인정되지 못했었다.

농가 주부의 농가경제에 대한 기여 정도를 화폐가치로 산출한 최근 연구(김인숙, 1991)에서는 농가 주부의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을 합한 노동가치가 대상농가의 평균소득액인 664만 5천원의 약 45%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농가 주부의 기여도를 정당하게 인정해 주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가 증대됨에 따라 농촌 여성은 종래의 농업보조자의 역할을 넘어서 농가의 농업경영을 담당하는 구성원으로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품종 선택이나 작부체계 결정, 농산

물 판매 등에 관한 영농 의사결정에는 여전히 여성의 참여도가 낮아 가족농업경영의 참여자라기 보다는 단순한 농업노동자로서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 농업노동에 여성의 참여가 더욱 증대될 것이 예상되는 현상황에서 단순농업노동자가 아닌 농가경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면에서 여성의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까지 농업기술이나 농기계의 사용에서도 여성은 대부분 제외되어 왔다. 그 결과 여성의 농업생산력은 남성에 비해 향상되지 못하여 임금체계에서도 불리한 실정이다. 또한 농업노동 참여에 따른 노동보수가 여성 개인에게 별도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타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에 비하여 농가내에서 경제적 재량권이 적으며 그만큼 여성자신의 농업에 대한 직업의식도 부족하게 된다. 영농 확대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될 경우에도 여성의 명의로 매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며, 이는 여성에게 농업경영자로서의 의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 나라 농민단체의 대표적인 농협활동에서도 여성의 참여는 대단히 부진하다. 농협은 1가구 1조합원을 원칙으로 세대주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히 여성은 농협 이용이나 농협조합원의 활동에서 제외되어 농사경영에 관한 제반 활동은 경영주의 역할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부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1989년에 개정되었으나 부인이 농협 조합원이 된 실적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상황은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의 농업경영형태가 가족경영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경영주는 가구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족하다는 인식과 아울러 가구주가 경영주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도 조합원이 되어 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을 좀더 농협활동에 참여시킬 때 여성이 영농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반제약은 우리 나라 가족제도의 가부장적 특성과 아직도 사회에 팽배해 있는 남녀차별의식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앞으로 농촌의 가족제도 자체가 부자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사회전체가 남녀평등이 되고 있는 현상황을 감안한다면 농업부문에서도 여성농민의 지위는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장

농촌 여성의 생활실태

1. 조사지역의 사회·경제구조

가. 조사지역 개요

조사지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1985년부터 조사연구해 오고 있는 4개마을로서 도시근교, 평야지역, 중간지역, 산간지역에서 각각 1개 마을로 되어 있다.

조사지역의 개요는 (표 3-1)에 요약한 바와 같이 행정구역상으로는 대전시 서구 기성동과 충남 논산군 채운면 야화마을, 부여군 초촌면 송국마을, 금산군 남이면 대양마을이다.

농가호수는 송국마을의 24호와 야화마을의 33호를 제외하고 두마을 모두 40여호로서 호당 평균 농업 종사자는 2명꼴로 대부분 부부가 농업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호당 경지면적은 기성동 마을이 2,076평으로 우리 나라 평균호당 경지면적에 못 미치며 송국마을은 조사마을 중 가장 큰 4,946평으로 우리 나라 평균 경지규모보다 약간 크다. 나머지 두 마

표 3-1 조사지역 개요

구 분	도시근교	평 야	중 간	산 간
지역소재	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논산군 채운면야화2리	부여군 초촌면 송국 2리	금산군 남이면 대양2리
세대수	56	49	28	41
농가호수	40	33	24	39
총인구	189	160	83	118
성비(%)	95.8	76.7	102.0	101.4
노령화 지수	77.8	–	–	72.7
농업 취업인구	62	57	37	72
농업+비농업인구	10	3	4	2
영농종사자수	72	60	41	74
호당평균종사자수	1.80	1.82	1.71	1.90
호당경지면적(ha)	0.69	1.17	1.65	1.06
(평)	2,076	3,513	4,946	3,179
겸업농가율(%)	37.0	48.6	22.2	22.0

을은 1ha가 조금넘는 평균수준이다. 겸업농가율은 평야지역인 야화마을이 48.6%로 가장 높은 편이며, 다음이 도시근교의 기성동으로 37.0%, 중간지역의 송국마을과 산간지역의 대양마을은 각각 22% 수준으로서 우리 나라 평균 겸업농가율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나. 조사지역의 사회·경제구조

1 도시 근교의 증촌마을

증촌마을은 대전 근교에 위치한 행정리로서 하나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농업여건은 배수가 양호한 사양토가 주를 이루어 답리작재배의 적지로 되어 있으며, 기후조건도 수도작에 적합하여 수도작이 중심작목이고, 마늘 등의 답리작 재배가 일반적이다.

증촌마을의 사회적 특성으로는 무송유씨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씨족

마을이다. 1992년 현재 전체 가구 54호 중에서 무송 유씨집안은 34호에 이르며 타성씨는 20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마을의 사회구조는 무송유씨의 씨족집단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타부락에 비해 젊은 부인들이 많이 있는 것도 이 마을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씨족마을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의식 속에는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유교적인 효의 규범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따라서 비교적 이촌율이 낮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

증촌마을은 대도시 근교에 위치해 있으나 근교 농업적인 특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즉, 낙농, 시설원예, 과수, 축산의 발달이 매우 낮다. 그 이유는 첫째, 호당 경지면적이 작아 원래 자급 위주의 영농을 해온 점 둘째, 대부분의 밭이 문중산의 기슭에 위치한 경사지로서 필지당 면적이 작고 토양이 척박하며 관수가 어려워 시설원예가 불가능한 점 등으로 상업적 농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주된 작부체계로는 관행적으로 논에서는 수도 단작과 수도+마늘의 이모작이다. 중요한 밭 작물은 고추, 참깨, 콩이며 이들은 대부분 단작의 형태로 재배된다. 축산은 한우가 중심으로 18호가 1~2두의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양돈농가는 1호뿐이다.

증촌마을의 노동력구조는 (표 3-2)와 같이 비농업부문의 취업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 마을은 대전근교에 위치함으로 해서 비농업인구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이는 대전시로 편입된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영농 종사자의 연령별 구성 변화의 특징은 40세 미만이 크게 감소하여 노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35세 미만의 단신 이촌이 집중적으로 일어남으로써 탈농이 진행되었고, 자연적 연령 상승으로 상위 연령층으로 이동하는 반면 신규 농업 참여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노동관행을 보면 증촌마을에서 공동체적 농작업 집단인 두레는 1960년대 초에 소멸되었다. 또한 고용노동관계가 매우 미약하며, 외부 노동력에 거의 의존하지 않고 마을내에서 자급하고 있다. 즉, 호당 경지규모가 영세하고 대부분 미곡 위주의 자급적 농업으로 동질적인 성격을 가

표 3-2 마을 주민의 경제활동(근교마을)

단위 : 명(%)

구 분			1985			1992		
			농가	비농가	계	농가	비농가	계
총 인 구			201	23	224(100.0)	141	48	189(100.0)
15세 미만 인구			66	8	74(33.0)	30	15	45(23.8)
15세 이상 인구	취업 인구	농 업	104	1*	105(46.9)	62	—	62(32.8)
		농업+비농업	7		7(3.1)	9	1	10(5.3)
		비 농 업	2	1	3(1.3)	9	11	20(10.6)
		소 계	113	2	115(51.3)	80	12	92(48.7)
	비취업 인구	실업(취업대기)	4		4(1.8)	2	3	5(2.6)
		학 생	6	3	9(4.0)	14	4	18(9.5)
		주 부	1	2	3(1.3)	1	5	6(3.2)
		노 령	9	6	15(6.7)	9	9	18(9.5)
		기타(질병·군복무)	2	2	4(1.8)	5	—	5(2.6)
		소 계	21	13	35(15.6)	31	21	52(27.5)

* 농업노동자임(48세 : 여자).

표 3-3 농기계 보급대수(근교마을)

단위: 대

구 분	1985	1986	1987	1988	1992
경 운 기	6	6	6	6	6
트 랙 터	0	0	0	0	1
이 앙 기	0	0	0	0	3
콤 바 인	0	0	0	0	1
동력탈곡기	2	1	0	0	0
동력분무기	3	3	4	4	5

지고 있어서 노동력 부족은 어느 정도 품앗이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그리고 경지가 없거나 영세한 가구들은 다소간 종토를 임차함으로써 생계를 보완하고 있다. 이 점이 한편으로는 영세농의 이촌을 어느 정도 억제하고 한편으로는 임노동의 압박을 완화시켜 주고 있다.

증촌마을에 농업기계가 도입된 것은 1977년 이후로서 1988년까지는

보유대수에 변함이 없었으나 그 이후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을 구입한 농가를 중심으로 위탁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2년 현재 농기계 보유실태는 (표 3-3)과 같이 밭농사를 위한 기계는 거의 보급되어 있지 않으며 기술수준도 낙후된 편이다.

이 마을의 비농업활동은 20여년 전에 보급된 단청기술이 있으며, 현재 6호의 가구주가 이에 참여하고 있다.

그밖에 공장취업, 사기업체의 사무, 경비직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공장취업자는 대부분 40~50대 여성의 단순 노동력으로 이들은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상과 같은 지역특성으로 인하여 논 농사는 위탁기계작업으로 수월해 졌으나 그만큼 소득은 감소하게 되어 임대농지는 있으나 임차하려는 농가는 많지 않다. 따라서 노동력이 있는 농가의 부인들은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며, 영농규모가 큰 농가에서는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들도 농기계작업이 가능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2 평야지역의 야화마을

조사마을의 야화2리는 충남 논산군의 평야지대에 위치한 행정리로서 1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위치적으로는 대전에서 38㎞권으로 중간지대에 속하나 읍으로서는 도시의 세가 비교적 큰 논산읍에서 국도를 거쳐 5㎞ 떨어진 곳으로 도시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근교적 특성도 가지고 있다.

마을이 속한 채운면은 전형적인 평야지대로서 일제말엽부터 경지정리가 시작되는 등 답작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이 일찍 보급된 선발 개발지역이다.

야화2리는 지주-소작관계가 극심한 소작인 마을이었으며, 일찍부터 외지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가구의 전출입도 비교적 많은 편으로 외부 사회에 개방적이며, 그만큼 변화의 수용, 적응 속도가 빨랐던 것으

로 보인다.

경제적 특성을 보면 농업에 있어 근교 농업적 성격은 두드러지지 않으나 자가노동력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딸기재배가 있으며, 수도작의 기계화가 1986년 이후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장이 일을 중심으로 한 겸업농이 많고,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주민의 노령화, 교육 수준의 향상, 소비패턴의 도시화, 부채 증가 등 농촌의 일반적 변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야화2리는 전체 농경지의 98.6%를 답이 차지하고 있어 답작 중심의 농업유형을 갖는다. 그러나 밭이 부족한 상황하에서 답리작 농업이 발달하고 있다. 답리작의 대표적 작물은 딸기, 수박, 참외 등이며, 비교적 온난한 기후조건으로 인하여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촉성 또는 반촉성 재배를 하고 있다.

야화2리는 1992년 말 현재 가구수 49호로 평균적 크기의 마을이며,

표 3-4 마을 주민의 경제활동(평야마을)

단위: 명(%)

구 분			1985			1992		
			농가	비농가	계	농가	비농가	계
총 인 구			174	58	232(100.0)	120	40	160(100.0)
15세 미만 인구			56	20	76(32.8)	27	9	36(22.5)
15세 이상 인구	취업 인구	농 업	77	4	81(34.9)	57	–	57(35.6)
		농업+비농업	9	1	10(4.3)	3	–	3(1.9)
		비 농 업	5	10	15(6.5)	12	14	26(16.3)
		소 계	91	15	106(45.7)	72	14	86(53.8)
	비취업 인구	실업(취업대기)	0	2	2(0.9)	–	1	1(0.6)
		학 생	16	4	20(8.6)	12	1	13(8.1)
		주 부	3	8	11(4.7)	1	4	5(3.1)
		노 령	7	9	16(6.9)	6	10	16(10.0)
		기타(질병·군복무)	1	0	1(0.4)	2	1	3(1.9)
		소 계	27	23	50(21.6)	21	17	38(23.8)

표 3-5 농기계 보급대수(평야마을)

단위: 대

	1985	1986	1987	1988	1992
경 운 기	6	6	5	4	4
트 랙 타	1	1	2	2	3
이 앙 기	1	1	1	1	2
바 인 다	1	0	0	0	0
콤 바 인	0	1	2	1	2
동력탈곡기	1	0	0	0	0
동력분무기	6	5	5	6	5

또한 각성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1945년 가구수는 49호, 가장 많았을 때인 1970년대 후반에도 54호로 가구 수의 변동은 적었으나, 마을의 역사가 짧고 폐쇄성이 약하여 전출입은 1985~88년간 각각 32호, 27호로 가구의 이동이 빈번했던 것이 특징이다.

야화2리의 가구별 직업구성을 보면 (표 3-4)와 같다. 마을의 입지가 논산, 강경과 가깝고 대도시와의 접근도가 좋은 입지조건으로 비농업가구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부의 경우는 비농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가의 경우는 주부가 아닌 농업취업인구에 포함된다. 1985~92년간에 전체적 구성비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경제활동참여 비율, 특히 비농업 취업인구가 약간 늘어났고, 비취업 인구중 주부가 크게 감소하였다. 이것은 노동력조건의 열악화 가운데 그 이용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가사에만 전념하던 비농가의 주부들이 영농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영농 종사자수는 상대적 비율은 큰 변화가 없지만 절대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감소의 원인은 재촌탈농으로 이들중 일부는 비농업에 취업하고 일부는 농업노동자화하였다. 이들의 탈농이유는 경작지 협소로 농업소득이 불충분한 경우와 자작지의 기계화가 진전되어 임차지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야화2리의 노동관행을 보면 공동체적 농작업집단인 두레는 1950년대 초반 농지개혁 후에 소멸되고 이후 농가간의 노동력 교환은 품앗이와 고지제가 주종을 이루었다. 고지제는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에 미리 이앙기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널리 행해졌으나 1986년 이후 기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일반고용제로 바뀌었다.

야화2리의 기계작업은 수도작의 경우 경운과 정지는 100% 기계화되어 있으며, 이앙과 수확도 90% 이상 기계화되어 있다. 다만 딸기재배 등 특작에서만 고용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야화2리의 겸업화는 일제 때부터의 미장기술과 최근의 논산 등지의 회사, 공장취업으로 늘어가는 추세이다. 겸업농가의 평균 소유면적은 1314평, 경작면적은 2,193평으로 평균농가에 비해 규모가 작다. 이는 겸업농이 과소농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유휴노동력의 활용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외활동 뿐 아니라 소작도 겸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야화마을의 기계화는 수도작의 경우 경운과 정지는 100% 되고 있으며, 이앙과 수확도 90% 이상 기계화되어 있다. 수도작의 기계작업은 이앙은 주로 다른 마을사람들의 임작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확작업은 한 농가가 대부분의 면적을 임작업하고 있다. 농기계 보급대수는 (표 3-5)와 같다.

이 마을 여성들의 영농 참여는 타조사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벼 농사도 여성이 전담하는 농가가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주로 특작부문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근 세도면의 시설원예에 임노동하는 여성들도 다수 있다. 벼 농사 단작 지역에서 비닐하우스 특작농업에 여성의 참여가 증대되고 있는 전형적인 지역이다.

③ 중간지역의 송국마을

조사마을인 송국2리는 충남부여군의 준평야지대에 위치한 행정리로서 3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치적으로는 대전에서 35㎞권, 부

여읍과 논산읍에서는 12㎞권(직선거리)에 자리잡은 중간지대에 속한다.

마을이 속한 초촌면은 전형적인 농업지대로서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이 비교적 뒤늦게 파급되어 온 지역이다. 근교지역에서와 같은 시설원예 등 근교 농업의 발달과 비농업적 산업의 확산, 산간지역에서와 같은 급격한 호수감소로 인한 과소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평균적인 의미에서 농업의 상업화, 젊은 층의 이촌에 따른 노령화, 도시와의 접근도 향상, 도시, 산업문화의 침투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마을은 기후조건에 따라 수도작 중심의 농업유형이 보편적이다. 수도 후작도 가능하나 기후외적 요인의 작용, 즉 곡간답의 배수 불량으로 답리작 재배가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답리작에 관한 기술도 논 보리를 제외하고는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 밭 작물은 땅콩, 고추, 담배 등 일조를 많이 요하는 작물이 발달하고 있다.

송국마을은 1992년말 현재 28가구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마을이다. 또한 경주 이씨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각성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마을주민 전체를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따라 구분하면 (표 3-6)과 같이 총주민 109명중 5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비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명에 불과해 마을의 비농업경제활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영농 종사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노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송국마을의 노동관행을 보면 협동노동의 필요에서 오는 공동체적 유대가 상당수 남아 있는 편이다. 전면적 공동작업체인 두레는 1975년까지 존속하였으며, 7~8월의 중경제초작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지역집단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마을에서도 품앗이가 급격히 쇠퇴하는 반면 고용·피고용관계가 증가하고 노임상승 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1987년에 크게 진전된 수도작 기계화와 땅콩재배 확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력은 대부분 여성 노동력이 대상이 되며, 임금 수준은 타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다.

표 3-6 마을 주민의 경제활동(중간마을)

단위: 명(%)

구 분			1985			1992		
			농가	비농가	계	농가	비농가	계
총 인 구			138	2	140(100.0)	73	10	83(100.0)
15세 미만 인구			46	0	46(32.9)	18	3	21(25.3)
15세 이상 인구	취업 인구	농 업	67	0	67(47.9)	37		37(44.6)
		농업+비농업	3		3(2.1)	4		4(4.8)
		비 농 업	2	1	3(2.1)	2	2	4(4.8)
		소 계	72	1	73(52.1)	43	2	45(54.2)
	비취업 인구	실업(취업대기)	1		1(0.7)			
		학 생	7		7(5.0)	8	1	9(10.8)
		주 부	2		2(1.4)		1	2(2.4)
		노 령	8	1	9(6.4)	3	3	6(7.2)
		기타(질병·군복무)	2		2(1.4)	1		1(1.2)
		소 계	20	1	21(15.0)	12	5	17(20.5)

표 3-7 농기계 보급대수(중간마을)

단위: 대

구 분	1985	1986	1987	1988	1992
경 운 기	3	4	4	3	3
이 앙 기	1	1	2	2	3
콤 바 인	1	1	1	1	2
동력탈곡기	1	1	1	1	1
동력분무기	4	5	5	5	5
트 랙 터	0	0	0	0	1

송국마을의 기계 보급 수준은 낮은 편이나 수도작의 기계 작업률은 크게 상승하였다(표 3-7). 이앙작업의 기계화율은 70.2%, 수확작업은 93.4%로 거의 대부분이 콤바인작업에 의존하게 되었다. 경운작업은 44.7%, 정지작업은 98.1%가 경운기로 이루어진다.

송국2리의 겸업화와 농외활동수준을 보면 순농업지대에 위치하고 있

기 때문에 근대적 상공업과 관련된 비농업활동은 거의 없는 편이다. 비농업농가 1호 겸업농가가 4~5호이며, 비농업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관정을 설치하는 작업, 간단한 건축작업따위이다.

이 지역에서 여성의 영농참여는 두드러져 농업 취업인구의 비중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이는 땅콩, 고추, 담배 등 손이 많이 가는 밭 작물의 재배가 많기 때문이다.

④ 산간지역의 대양마을

대양2리는 충남 금산군 남이면에 속해있는 행정리의 하나로서 금산읍에서 22km, 남이면 소재지인 하금리에서는 4km의 거리에 있다.

이 마을에 버스가 들어온 것은 1981년 이후로 가장 안쪽 마을까지 운행하는 버스는 마을에서 1박을 할 정도로 산간오지 마을에 속한다.

남이면은 임야율이 85.2%인 반면 경지율이 10.7%에 불과한 산간지역이다. 그 중 대양2리는 임야가 50.1%에 답은 14.6%에 불과하여 田은 31.7%인 산간 전작지대이다.

대양2리는 해발 250~400m의 고지대의 산록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름철의 저온으로 벼 농사에 상당한 한계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으나 여름 채소 재배가 가능한 조건이 된다. 이 조건으로 1986년부터 약 3ha의 경지에 여름 배추를 재배하여 고소득작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대양2리의 특산물중의 하나는 인삼이다. 인삼재배는 8·15 전후에 금산읍내 주민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마을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며, 현재는 17,000여평의 논밭에 인삼을 재배하고 있다.

대양2리는 호당 경지면적이 영세할뿐만 아니라 곡간답, 산전이 많아 실제 경작면적도 작고 생산력도 낮다. 최근에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힘든 작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휴한지가 늘어나고 있다.

대양2리의 관행적인 논의 작부체계는 수도단작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답리작으로 보리를 많이 재배하였으나 조생종 벼 품종이 보급되면

서 점차 감소하여 지금은 전무한 형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다 수익성이 높은 인삼, 고냉지 채소의 재배를 위해 논을 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담배는 1950년대부터 보급이 확대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노동력의 부족으로 경작농가와 면적이 줄어드는 추세였으며, 최근에는 담배 수입 자유화에 따라 경지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1983년부터 정부의 복합영농정책이 마을에 도입되어 한우와 대추나무, 참깨, 콩 등이 확대되었으나 참깨를 제외한 작목들은 성공하지 못하였고 1987년 이후 급속히 확대된 고냉지채소는 6월에 파종하고 8월에 출하하고 있어 노동력 수요가 수도작과 겹치지 않은 현금소득원이 되고 있다.

수도작의 기술 수준을 보면 필지당 면적이 작고 농로가 미발달되어 기계화 보급 수준이 낮아 주로 역우와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보온못자리는 1975년경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제초제의 사용은 1980년대 초반으로 그 이전에는 주로 호미에 의한 중경제초를 하였다. 경운기가 처음 보급된 것은 1972년이었으나 처음에는 주로 운반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경운작업에 본격적으로 쓰인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아직도 경지조건이 나쁜 30%의 논은 역우에 의한 경운,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 이앙과 수확은 전부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탈곡은 1930년대 이후 족답식 탈곡기로 작업하다 1975년에 반자동식 탈곡기가 도입되었다(표 3-9 참조).

밭 작물은 대부분 노지직파를 하고 있다. 비닐하우스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85년에 고추모 재배를 시작하면서이다. 그 후 일부채소에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고, 버섯재배에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밭의 경운작업은 아직 역우에 의존하는 면적이 절대이나 일부 담배, 인삼밭, 보리밭의 경지조건이 좋은 곳에서는 경운기를 사용한다. 밭의 제초작업은 1984년경부터 제초제를 사용하였다. 운반작업은 아직 지게 사용이 많은 편이다. 인삼밭의 설치는 주로 자가노동을 이용하여 지주목과 덮개를 자가 생산하여 설치한다.

마을주민 전체를 경제활동여부와 그 종류에 따라 구분하면 (표 3-8)과 같다. 산간마을은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농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비농업의 비중이 매우 작은 것이 특징이다.

취업인구의 전체적인 구성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농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30세 미만의 젊은 노동력이

표 3-8 마을 주민의 경제활동(산간마을)

단위: 명(%)

구 분			1985			1992		
			농가	비농가	계	농가	비농가	계
총 인 구			170	12	182(100.0)	113	5	118(100.0)
15세 미만 인구			39	5	44(24.2)	23		23(19.5)
15세 이상 인구	취업 인구	농 업	114	2	116(63.7)	72		72(61.0)
		농업+비농업	1		1(0.5)	2		2(1.7)
		비 농 업	1	1	2(1.1)			
		소 계	116	3	119(65.4)	74		74(62.7)
	비취업 인구	실업(취업대기)			0(-)	3		3(2.5)
		학 생	4		4(2.2)	3		3(2.5)
		주 부	1		1(0.5)	3		3(2.5)
		노 령	8	3	11(6.0)	7	4	11(9.3)
		기타(질병·군복무)	2	1	3(1.6)		1	1(0.8)
		소 계	15	4	19(10.4)	16	5	21(17.8)

표 3-9 농기계 보급대수(산간마을)

단위: 대

구 분	1985	1986	1987	1988	1992
경 운 기	11	13	13	13	13
이 앙 기	0	0	0	0	0
콤 바 인	0	0	0	0	0
동력탈곡기	2	3	3	3	3
동력분무기	1	1	2	2	4
건 조 기	1	3	3	3	3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의 특성상 고등 교육과 도시 문물에 접할 기회가 적어 잔류 인원이 많았던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양2리의 노동관행은 4개의 자연부락이 각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노동력의 교환, 고용도 자연부락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체적 농작업집단인 두레도 호수가 비교적 많고 논 면적이 넓은 두 개의 마을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의 농업노동, 고용·피고용관계는 전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작은 호당규모가 작아 대부분의 농가는 모내기 때는 자가노동력 또는 품앗이로 해결하고 있으며, 벼베기는 거의 가족노동력으로 충당하고 있다. 따라서 답작에서의 고용관계는 경운, 정지, 방제 등의 기계 임작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작에서는 인삼, 담배, 경작농가에서 고용관계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대양2리에서는 경작자가 작물재배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남에게 맡기는 청부경작의 형태는 발달되어 있지 않다. 고용노동을 쓰는 경우에도 경작자의 참여와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경운, 정지, 방제, 탈곡 등의 기계작업에서만 수탁자의 책임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양2리의 비농업활동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나타나 항상적인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1명도 없으며, 일시적, 부분적 취업에 그치고 있다.

이 마을의 농업은 대부분 가족노동력으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부인들도 거의 농업취업자에 속하며 이들은 산야초를 채취하여 인근 시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등 농가소득 활동에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

2. 조사지역 농촌 여성의 농가유형별 특성

가. 조사지역 농가부인의 특성

1 연령별 구성

표 3-10 조사농가 부인의 연령별 구성

단위: 호(%)

구 분	도시근교	평 야	중 간	산 간	계
20대	0	0	1	5	6(5.0)
30대	9	4	4	3	20(16.5)
40대	5	8	5	6	24(19.8)
50대	8	10	7	9	34(28.1)
60대이상	15	9	3	10	37(30.6)
계	37	31	20	32	121(100.0)

4개 마을의 조사농가는 전체농가 133호 중 조사가 가능했던 121호로서 응답자를 연령층으로 보면 (표 3-10)과 같다. 이중 가장 응답자가 많았던 연령계층은 60대 이상으로 전체응답자의 30.6%인 40명이었으며 20대가 6명으로 가장 적었다. 50대 이상이 60%를 차지하는 반면 20~30대의 젊은층은 20%정도에 불과하며 농촌 여성인구의 고령화를 나타내고 있다.

마을별로는 산간마을이 비교적 고른 연령층을 나타냈으며, 도시근교와 평야마을은 20대는 한 사람도 없었다.

2 학력별 구성

조사농가의 부인들의 학력을 보면 (표 3-11)과 같이 46.7%가 무학

표 3-11 조사농가 부인의 학력별 구성

단위: 호(%)

구 분	도시근교	평 야	중 간	산 간	계
무 학	18	11	9	19	57(47.1)
국 졸	16	15	9	12	52(43.0)
중 졸	2	3	2	1	8(6.6)
고 졸	1	2	0	1	4(3.3)
계	37	31	20	33	121(100.0)

표 3-12 조사농가 남편의 학력별 구성

단위: 호(%)

구 분	도시근교	평 야	중 간	산 간	계
무 학	13	0	5	10	28
국 졸	17	17	5	16	55
중 졸	0	3	4	5	12
고 졸	4	6	3	0	13
대 졸	1	0	0	0	1
계	35	26	17	31	109

이며, 중졸 이상은 10%로 학력수준이 낮은 편이다. 이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학력이 거의 모두가 무학이기 때문이다.

이를 마을별로 보면 마을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고졸 이상인 부인은 각 마을에서 1~2명 뿐이었다.

한편 조사지역 남자들의 학력을 보면(표 3-12) 무학은 전체 조사농가의 25.7%이었으며 중졸 이상은 23.9%로 여성에 비해서 다소 높은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3 조사 농가 부인의 경영주와의 관계

응답자와 농가경영주와의 관계를 보면 (표 3-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80%가 경영주의 부인이며, 경영주가 본인인 경우는 11.5%로서 모두

표 3-13 조사농가 부인의 경영주와의 관계

단위: 호(%)

구 분	도시근교	평 야	중 간	산 간	계
처	31	25	17	28	101(83.5)
본 인	2	4	3	1	10(8.3)
며 느 리	2	0	0	2	4(3.3)
어 머 니	1	2	0	2	5(4.1)
기 타	1	0	0	0	1(0.8)
계	37	31	20	33	121(100.0)

가 남편과 사별한 부인으로 이 중 단신가구가 7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며느리인 경우는 전체 조사농가 중 4명이었으며 아들이 경영주인 경우도 5명 있었다. (표 3-13)에서 기타는 경영주의 조카인 경우로 동거가족이다.

나. 조사지역 농가의 가족구조

1 가족유형

우리나라 농촌 가족의 유형은 1960년대까지 직계가족과 핵가족이 지배적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 직계가족의 감소로 1985년 현재 직계가족은 10.2%이며, 핵가족은 68.8%, 단신가족은 6.9%이다(표 3-14).

조사농가의 재촌 가족만을 대상으로 가족유형을 구분하여 보면 (표 3-15)와 같이 전체 조사농가의 65%가 부부 중심의 핵가족이며, 단신가족은 5.8%로 우리나라 농촌 인구의 이농과 고령화에 따른 핵가족, 단신가족의 증가 현상이 조사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조사농가중 직계가족은 25%로 전국에 비해서 높은 편이며, 재촌 평균 가구원수는 3.41명으로 전국 3.79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가구유형

조사농가 121호 중 70가구가 자녀 등 가족원이 취업, 취학을 목적으로 출타하여 별도의 가구를 형성하고 있다. 1가족2가구에서 1가족 4가구까지 분산거주하고 있는데, 특히 자녀의 취학을 위해서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전체 조사농가의 22%에 해당하였다(표 3-16).

이와 같이 취학으로 인한 가족 분산은 농가경제의 큰 부담이 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의 단란함, 가정교육의 결핍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표 3－14 군부의 가족형태 비율

단위： %

가족형태 \ 연도	1966	1970	1975	1980	1985
단 독 가 구	2.3	－	4.2	4,8	6.9
핵 가 족	64.7	71.5	67.7	68.3	68.8
직 계 가 족	20.6	19.9	11.9	10.9	10.2
기 타 가 구	12.4	8.6	16.2	16.0	14.1

자료: 경제기획원 통계청,「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각년도.

표 3－15 조사농가의 가족유형(재촌)

단위: 호(%)

구 분	도시근교	평 야	중 간	산 간	계
단신가족	2	4	0	1	7(5.8)
부부	9	8	6	14	37(30.6)
부부＋미혼자녀	16	9	8	5	38(31.4)
부부중＋미혼자녀	0	1	2	0	3(2.5)
(편)부모＋부부＋자녀	8	8	3	9	28(23.1)
(편)부모＋부부중1＋자녀	0	0	0	1	1(0.8)
(편)부모＋손자녀	0	0	1	0	1(0.8)
확대가족	2	1	0	3	6(5.0)
계	37	31	20	33	121(100.0)

표 3－16 조사농가의 가구유형

단위：호(%)

구 분	도시근교	평 야	중 간	산 간	계
1가족 1가구	18	18	6	9	51(42.1)
1가족 2가구	14	5	12	11	42(34.7)
1가족 3가구	5	4	1	13	23(19.0)
1가족 4가구	0	4	1	0	5(4.1)
계	37	31	20	33	121(100.0)

다. 조사지역 농가의 농업경영구조

1 조사농가의 전·겸업별 구성

표 3-17 조사농가의 전·겸업별 구성

단위: 호(%)

구 분	도시근교	평 야	중 간	산 간	계
전 업 농	19	17	16	26	78(64.5)
겸 업 농	15	9	3	5	32(26.4)
농업노동자	1	1	0	1	3(2.5)
임 대 농	1	4	0	1	6(5.0)
비 농 가	1	0	1	0	2(1.6)
계	37	31	20	33	121(100.0)

(표 3-17)과 같이 조사농가의 65%가 전업농이며, 부부중 어느 한쪽이 농업 이외의 직업을 가진 겸업농의 비율은 16.2%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노동자가 3호, 임대농이 6호 포함되어 있으며, 비농가도 2호 포함되어 있다. 비농가의 경우는 현재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있으나 최근까지 농사를 지었던 농가이다.

2 조사농가의 작부체계

조사농가의 작부체계를 보면 (표 3-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95%가 수도작 중심의 작부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 중 수도작 단작농가는 약 26.4%를 차지한다. 축산을 하는 농가는 44호로 이들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은 소가 대부분이었고,그밖에 개, 돼지, 닭, 염소 등을 약간씩 사육하고 있다. 특작과 하우스를 전작에 포함시키면 전작농가는 69호로서 전체 조사 농가의 57%가 이에 해당하였다. 특히, 조사농가중 특작농가는 20호로서 이는 산간지역의 대양마을에서 많은 농가가 인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우스농가는 전체 조사농가 중 6호에 불과하여 하우스는 타지역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영농종사자 수

조사농가의 영농종사자는 (표 3-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농가의 71.1%가 호당 2명씩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부부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중 영농종사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작년까지 농사를 짓다가 금년에 위탁영농, 또는 임대농이 된 농가로 실제적인 노동력이라는 점에서 영농 종사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 되었으나 내년에는 다시 영농에 종사할 수도 있는 농가이다.

또한 영농종사자가 1명인 14농가 중에는 여성 단신가구 7호가 포함되어 있다.

표 3-18 조사농가의 작부체계

단위: 호

구 분	도시근교	평 야	중 간	산 간	계
① 수도작	9	19	3	1	32(26.4)
② 전 작	1	0	0	1	2(1.7)
③ 수도+전작	7	1	6	11	25(20.7)
④ 수도+축산	5	1	1	1	8(6.6)
⑤ 전작+축산	1	0	2	1	4(3.3)
⑥ 수도+전작+축산	11	0	5	16	32(26.4)
⑦ 수도+하우스	0	4	0	0	4(3.3)
⑧ 수도+전작+하우스	0	1	1	0	2(1.7)
⑨ 기 타	3	5	2	2	12(9.9)
계	37	31	20	33	121(100.0)

표 3-19 조사농가의 영농 종사자 수

단위: 호

구 분	도시근교	평 야	중 간	산 간	계
1 명	5	4	3	2	14(11.6)
2 명	24	23	14	25	86(71.1)
3 명	3	0	2	3	8(6.6)
4 명	1	1	0	3	5(4.1)
없 음	4	3	1	0	8(6.6)
계	37	31	20	33	121(100.0)

표 3-20 조사농가의 경작규모별 구성

단위: 호(%)

구 분	도시근교	평 야	중 간	산 간	계
임 대 농	3	5	1	2	11(9.0)
0.5ha미만	18	6	3	3	30(24.8)
0.5~1.0ha	10	9	8	14	41(33.9)
1.0~2.0ha	5	5	2	13	25(20.7)
2.0ha이상	1	6	6	1	14(11.6)
계	37	31	20	33	121(100.0)

4 영농규모별 농가수

경작규모별로 농가수를 보면 (표 3-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조사농가의 약 24.8%에 해당하는 농가가 0.5ha미만의 영세농이었고, 0.5~1.0ha의 소농계층은 41호로서 33.9%에 해당하였다. 반면에 2ha이상의 대농은 14호로서 전체조사농가의 11.6%이었다.

마을별로는 산간마을과 도시 근교마을이 비교적 영농규모가 작았으며, 평야마을에서 대농층이 많았다. 그러나 경작규모가 작더라도 인삼, 약초와 같은 고소득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규모가 소득과 비례되지 않기 때문에 경작규모를 기준으로 농가 경제를 일의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조사농가의 수도작 규모는 (표 3-21)과 같이 전체 조사농가의 44.6%가 0.5ha 미만의 농가이었고, 2ha 이상의 농가는 11호로서 전체의 9.1%에 해당하였다. 호당 수도작 규모는 평야마을이 3,701평, 중간마을이 3,792평으로 근교마을 1529평과 산간마을 975평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농가의 전작규모는 (표 3-22)와 같이 전체농가의 39.7%가 0.5ha 미만의 농가이었고, 2ha 이상의 농가는 2호로서 전체농가의 1.7%에 해당하였다. 마을별로는 산간마을의 규모가 평균 2,026평으로 가장

표 3-21 조사농가의 수도작 규모별 구성

단위: 호(%)

구 분	도시근교	평 야	중 간	산 간	계
	5	5	3	4	17(14.0)
0.5ha 미만	17	7	6	24	54(44.6)
0.5~1.0ha	12	8	3	5	28(23.1)
1.0~2.0ha	3	5	3	-	11(9.1)
2.0ha 이상	-	6	5	-	11(9.1)
계	37	31	20	33	121(100.0)

표 3-22 조사농가의 전작 규모별 구성

단위: 호(%)

구 분	도시근교	평 야	중 간	산 간	계
전작없음	14	25	5	4	48(39.7)
0.5ha 미만	22	4	9	13	48(39.7)
0.5~1.0ha	1	2	4	7	14(11.6)
1.0~2.0ha	-	-	1	8	9(7.4)
2.0ha 이상	-	-	1	1	2(1.7)
계	37	31	20	33	121(100.0)

크고, 전작이 거의 없는 평야마을을 제외하면 근교마을이 528평으로 가장 작았다.

3. 조사지역 농촌 여성의 생활실태

가. 농업노동 참여실태

1 농업노동참여 여부

농촌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농사일을 하고 있는가, 한다면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며, 어떤 작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농가 121농가중 83%인 100농가의 부인이 현재 농사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농사일을 하지 않고 있는 농가는 대부분 수도작 농가로서 임대농이거나 위탁영농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마을별로 보면 도시근교마을인 평촌의 경우 전체농가 37호중 농가부인이 농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농가는 9호로서 이는 기계를 가진 농가에게 벼농사 전반을 위탁 하거나 부분적으로 작업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야마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계를 가진 농가에게 농작업을 위탁하고 있는 농가와 과거에 버섯을 재배했던 농가의 부인이 현재는 비농가가 됨으로써 이들 6명만이 농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서 산간마을인 대양마을의 경우는 부인이 농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농가는 전체 조사농가 33호중 5호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도시근교마을이나 평야마을과 같이 노동력이 있는데도 농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고 건강이 좋지 않거나 연로하여 농사일을 못하는 경우였다.

중간마을인 송국의 경우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아 농사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1농가 외에는 전체조사농가의 부인이 농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표 3－23 농가 부인의 농사일 참여 정도

단위: 명

구 분	한다	안한다	계
도시근교	28	9	37
평야	25	6	31
중간	19	1	20
산간	28	5	33
계	100	21	121

표 3-24 농가 부인의 결혼전 농사경험 유무

단위: 명(%)

구 분	많이 해보았다	약간 해보았다	해본 적이 없다	계
도시근교	9(24.3)	6(16.2)	22(59.5)	37(100)
평 야	6(19.4)	6(19.4)	19(61.3)	31(100)
중 간	0(0)	5(25.0)	15(75.0)	20(100)
산 간	15(45.5)	5(15.2)	13(39.4)	33(100)
계	30(24.8)	22(18.2)	69(57.0)	121(100)

이와같이 지역별 특성에 따라 여성의 영농참여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요인으로는 벼농사 위주의 지역일 경우 기계화가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마을에 기계화가 진행되어 기계작업을 위탁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여성의 영농참여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산간지역일수록 기계화가 어렵고 밭 농사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성의 영농참여는 평야지역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농사경력과 도시 생활 경험

농촌 여성들의 농사경력을 알아 보기 위해 조사지역의 농촌 여성들이 언제부터 농업노동에 참여했는지를 조사하여 보았다. (표 3-24)와 같이 전체 조사농가 중에서 결혼 전에도 농사를 많이 해 보았다는 농가는 121호중 30호로 나타났으며, 약간 해 보았다는 농가는 22호로 약 43%의 농가가 결혼전에도 농사일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별로 보면 산간마을의 경우가 결혼 전에 농사일을 한 농가가 많았다. 산간마을인 대양2리의 경우 15농가의 부인이 결혼 전에도 농사일을 많이 했다고 답하고 있으며, 약간 해본 농가까지 포함하면 조사농가의 7할 정도가 결혼전부터 농사일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중간마을의 경우는 결혼 전에 농사일을 전혀 해보지 않은 농가가 20호중 15호로 나타났으며, 약간 해본 농가는 5호로 조사마을 중에서 결혼전의 농사경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근교마을과 평야마을의 경우도 반수 정도가 결혼 전부터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나타나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결혼전의 농사경험은 농촌 여성의 결혼전 성장지와도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조사지역 농가부인들은 전체 121조사농가중 106호의 농가부인이 읍·면의 농촌지역에서 성장하여 농가의 가족 구성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지역 농가부인중 40명만이 도시 생활을 경험해 보았으며, 도시 생활을 경험한 여성들중 반수의 여성들이 도시의 공장이나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경험하였다. 도시 생활을 하다 귀향한 이유로는 농촌총각과 결혼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농사를 짓기 위해 귀향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결혼후 가족과 함께 도시 생활을 경험한 부인들이었다.

3 농업노동 참여 정도

다음은 여성이 농업노동에 실제로 어느정도 참여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표 3-25)와 같이 여성이 전적으로 농사일을 하는「주종사자」의 경우는 전체조사농가 121호중 19농가이었으며, 다른 가족과 비슷하게 일하는「부부종사자」농가는 60호, 다른 가족을 돕는 정도로 하는「농사보조자」는 19농가로 나타났다.

이 중 다른 가족과 비슷한 정도로 일하는 농가는 대부분 경영주가 남편인 경우이며 전적으로 맡아서 한다는「주종사자」농가중에도 12농가는 남편이 경영주인 농가이었다. 그 밖에 본인이 경영주인 단신가구이거나 경영주가 아들 이더라도 출타중인 경우 실제적인 경영주는 대부분 농가부인이었다.

농사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주종사자」경우와 다른 가족과 비슷한 정도로 하는「부부종사자」경우를 합쳐서 이를 실제적인 영농종사자로 본다면 영농참여자 100호중 81농가가 이에 해당한다.

농업노동참여정도를 연령별로 보면 (표 3-26)과 같이 고령층에서「주

표 3-25 농가 부인의 농업노동 참여도

단위 : 명

구 분	전적으로 맡아서 한다	다른가족과 비슷하게 한다	다른가족을 돕는정도로 한다	계
도시근교	7	14	7	37
평 야	5	14	6	31
중 간	5	10	3	20
산 간	2	24	3	33
계	19	62	19	121

주: 기타는 1992년 현재 농업노동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부인과 비농가의 부인이 포함됨.

종사자」 경우가 많았다. 이는 고령층에서 여성경영주의 비율이 높고 경영주가 남편이더라도 고령층일수록 여성의 노동비중이 남편보다도 더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영농규모별로 농업노동 참여 정도를 보면 (표 3-27)과 같이 소규모 농가에서 여성의 노동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5ha 미만의 영세농가에서는 대상농가 44호중 12농가가 「주종사자」로서 전적으로 부인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 이에 반해서 2ha 이상의 농가에서는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여성이 전적으로 농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단신가구이거나 겸업농의 경우로서 대부분 경영규모가 작기 때문이었다.

표 3-26 농가 부인의 연령별 농업노동 참여도

단위: 명

구 분	전적으로 맡아서 한다	다른 가족과 비슷하게 한다	다른 가족을 돕는 장도로 한다	계
20 대	1	2	2	5
30 대	1	10	2	13
40 대	2	13	8	23
50 대	5	2	1	32
60 대	8		5	22
70 대	2	2	1	5
계	19	61	20	100

표 3－27 농가 부인의 경영규모별 농업노동 참여도

단위: 명

구 분	전적으로 맡아서 한다	다른 가족과 비슷하게 한다	다른 가족을 돕는 정도로 한다	계
0.5ha 미만	12	11	8	31
0.5～1.0ha	4	26	4	34
1.0～2.0ha	3	14	3	20
2.0ha 이상	0	11	4	15
계	19	62	19	100

④ 농작업 시간의 변화

농촌 여성들의 농작업 시간은 과거 10년 전에 비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업 시간이 과거에 비해 훨씬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부인은 전체 121조사농가 중 50호이었고, 약간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농가는 29호이었다.

농촌 여성의 농작업이 줄어든 이유로는 제1원인으로 농기계사용을 꼽고 있었다. 또한 기계화로 인하여 농번기에 품앗이나 일군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다량의 취사노동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촌의 인력부족으로 농작업시간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응답한 농가도 15호 있었다. 특히, 여성이 전담하고 있는 밭농사의 경우는 기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의 농업노동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나. 농업노동 참여 내용

농촌 여성이 참여하는 농작업은 논 농사와 밭 농사에서 각각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사지역의 부인들은 (표 3－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논농사의 경우, 모때우기, 김매기등 기계화 할 수 없는 작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논갈이, 비료주기, 농약 살포 등은 주로 남편이 하고 있다.

또한 벼 농사의 경우 조사지역에서는 작업을 일괄하여 위탁시키거나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에게 모내기, 벼베기, 경운등의 작업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영농참여가 그만큼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밭 농사의 경우는 (표 3-29)와 같이 밭갈이, 농약 살포를 제외한 전체 작업에서 여성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밭 농사의 대부분 작업에서 부부가 비슷하게 하거나 여성이 주로 작업하고 있으며 특히 김매기와 같은 작업은 전적으로 여성이 담당하는 농가가 60% 정도이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서 볼 때 농작업의 내용별로 성별 역할분담이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은 대체로 일손이 많이 가고 장시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을 맡고 있으며 기계화가 진전되지 않은 밭 농사는 여성이 전담하고, 기계화가 진전되어 있는 벼농사의 주된 작업은 남성이 담당하고 있다.

이 같은 작업분담구조에서는 여성의 작업능률을 높이고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서 특히 밭 농사의 작업강도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밭 농사의 기계화가 가

표 3-28 농가 부인의 논 농사의 작업참여 내용

단위: %

구 분	주로남편이 한다	부부가 비슷하게 한다	주로 본인이 한다	다른가족이 한다	품 을 산 다	위탁	계
논 갈 이	25.2	1.9	1.9	3.9	10.7	56.3	100.0
못 자 리	24.2	23.2	11.1	4.0	7.1	27.3	100.0
모 내 기	13.7	6.9	3.9	3.9	13.1	57.8	100.0
모때우기	23.7	30.9	24.7	6.2	6.2	8.2	100.0
김 매 기	29.2	29.2	20.8	5.2	9.4	6.3	100.0
비료주기	58.6	10.1	11.1	7.1	2.0	11.1	100.0
농약살포	31.0	24.0	8.0	4.0	6.0	27.0	100.0
벼 베 기	13.7	15.7	2.0	2.9	8.8	56.9	100.0
타 작	12.9	11.9	2.0	3.0	14.9	55.4	100.0

표 3－29 농가 부인의 밭 농사의 작업 참여 내용

단위 : %

구 분	주로남편이 한다	부부가 비슷하게 한다	주로 본인이 한다	다른가족이 한다	품 을 산 다	위 탁	계
밭 갈 이	44.6	4.8	12.0	7.2	10.8	20.6	100.0
씨뿌리기	16.0	29.6	44.4	7.4	2.6	－	100.0
김 매 기	11.3	22.5	60.0	5.0	1.2	－	100.0
옮겨심기	12.0	33.3	48.0	6.7	－	－	100.0
비료주기	33.8	30.0	30.0	6.2	－	－	100.0
농약살포	51.9	20.3	20.3	5.1	1.3	1.0	100.0
수 확	12.2	48.6	27.0	5.4	1.8	－	100.0
타 작	15.1	43.8	27.4	5.5	8.2	－	100.0
포 장	10.2	40.0	38.3	5.0	6.5	－	100.0

능할 수 있도록 기반정비를 추진하고 관리기와 같은 기계의 개발 보급이 여성의 노동 절감을 위해서 필요하다.

다. 품앗이 및 피고용 농업고용 실태

여성이 품앗이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전체 응답자의 25%만으로 작업 내용은 주로 밭일에서 품앗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 농사기간 중 품앗이로 농작업을 한 날수는 상시로 하고 있는 농가가 2호,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농가가 2호, 11～20일은 5호, 10일 이하가 21농가로 조사되었다. 품앗이는 산간마을과 중산간마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의 등가교환이라기보다는 작업내용과 작업분량이 다르더라도 자기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얻기 위해 품앗이를 해야만 부족한 일손을 충당할 수 있는 실정이다.

품앗이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참여가 많으며 그결과 여성의 농업노동이 더욱 가중하게 된다. 조사지역에서 남자의 품앗이는 조사농가 121호 중 18호로서, 주로 논 농사에서 품앗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남녀 모두 산간마을에서 품앗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산간마을이 기계화가 덜 진전되었고 또한 공동체적인 노동관

표 3-30 농가 부인의 품앗이 및 피고용 농업노동

단위: %

구 분	품 앗 이		피고용 농업노동	
	농 가 수	비 율	농 가 수	비 율
0일	94	77.7	112	92.6
1~10일	20	16.5	1	0.8
11~20일	5	4.1	4	3.3
21~30일	2	1.7	1	0.8
30일 이상	0	0.0	3	2.5
계	121	100.0	121	100.0

행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성의 피고용 농업노동은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전체 조사농가 121호중 8농가만이 피고용 농업노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주로 평야마을인 채운마을과 중간마을의 송국에서 나타났다. 이중 채운의 농가부인들은 인접한 부여군 세도면의 비닐하우스단지에 출근하여 농업노동자로서 농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농지를 소유하지 않고 있거나 영세농의 경우가 대부분인 이들 농가부인들은 현금 수입을 목적으로 원거리까지 임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라. 농촌 여성의 농기계 사용실태

조사농가중 농기계를 다루어본 적이 있는 부인은 전체 응답자의 10%에 불과한 11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중산간지역인 송국에서 4명이 있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각각 1~2명에 불과하였다.

부인들이 사용한 적이 있는 농기계는 경운기가 4명, 방제기가 4명, 도정기가 1명 있었다. 이들 부인들의 연령층은 30대가 1명, 40대가 4명, 50대가 4명이었다. 경영규모는 2ha 이상이 2명, 나머지는 1ha가 못되는 농가들이었다.

이와 같이 농기계 사용경험이 적은 이유로 조사지역 여성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선 농가의 농기계 보유율이 낮다는 점이다. 또한 농기계

표 3-31 성별 품앗이 및 피고용 농업노동

단위: 호

구 분		도시근교	평 야	중 간	산 간	계
조사농가호수		37	31	20	33	121
품 앗 이	여성	5	8	7	11	31
	남성	7	3	–	8	18
피 고 용 농업노동	여성	–	3	2	2	7
	남성	2	2	3	5	12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기계를 다루기에 힘이 들며 농기계 작업을 남편이 전담하기 때문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한편 남자의 피고용농업노동은 전체 조사농가중 10호로써 여성보다 약간 많은 편이며 여성들이 비닐하우스내 작업에 피고용되어 있는 것에 비해 남성들은 논 농사의 이앙과 예취의 기계작업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이 품앗이나 피고용농업노동에서도 작업에 따른 성별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농기계가 보급되어 여성들의 농사일은 많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수도작의 경우는 농번기에 대량취사를 하지 않아도 되어 그에 따른 노동이 많이 작업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농작업에 있어서는 여자들의 일은 대부분 손으로 하는 일이므로 농기계의 보급이 여성의 농작업에는 직접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에게도 농기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농가는 121호중 77호로 많은 여성들이 농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었으며 여성에게 적합한 기계로는 여성이 취급하기 용이한 작고 가벼운 기계를 원하고 있었다.

농기계사용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농가부인은 전체 조사농가중 4명에 불과하였으며 이들이 받은 교육은 주로 경운기 운전법에 관한 것이었다. 이와같이 농기계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이유로는 농기계교육이 이들 마을에서 실시되지 않았거나, 여성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응답자들은 지적하고 있었다.

농기계교육외에 영농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은 전체 조사농가 중 28명으로서 교육 내용은 벼 농사와 특작에 관한 것이었다. 그 밖에 생활개선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영농교육을 받은 여성들 중에서도 영농교육이 실제로 농사에 도움이 되었다는 여성은 15명이었으며, 나머지 13명은 인력부족, 토지부족, 노령화 등 농업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영농교육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농촌 여성이 농업경영주로서 적극적으로 영농에 참여하고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적합한 기계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여성들에게 농기계 교육을 비롯한 각종 영농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작업강도를 낮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 농산물 판매활동

농촌 여성의 영농 참여에 대한 보수가 여성 개인에게 별도로 지불되기 어려운 가족농업경영하에서 여성의 농산물 판매활동의 참여는 농가내에서 경제적 재량권의 크기와 직결될 수 있다. 쌀은 농협매상이고, 기타 농산물은 대부분 경영주에 의해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의 판매활동은 소량의 시장판매에 불과하다.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시장에 파는 일이 있다고 응답한 농가부인은 전체조사농가 121호 중에서 47농가로 나타났다. 마을별로는 산간마을의 경우 가장 많았다. 산간마을은 산채, 잡곡류 생산이 많고 이러한 농산물은 정부 매상이나 농협의 계통출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시장에 가지고 나가 판매하는 농가가 많았다.

쌀을 판매한 경험이 있는 농가도 다수 있었는데 정부에 매상하고 남은 쌀중에서 자급분을 제한 쌀을 몇 말씩 가지고 나가 시장에서 직접 파는 부인들이었다. 현재 조사마을에서 여성에 의해 주로 판매되는 품목은 잡곡류가 많고, 다음으로 고추, 마늘과 같은 양념채소가 많았다.

표 3-32 농가 부인의 농산물 판매경험 여부

단위: 호

구 분	도시근교	평 야	중 간	산 간	계
판매경험 있음	19	5	5	18	47
없음	18	26	15	15	74
계	37	31	20	33	121

바. 농외취업활동 실태

조사농가중 현재 농외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부인은 전체 121농가중 5명뿐이었다. 그 밖에 자기 농사외에 피고용노동활동을 하는 부인을 포함하면 전체응답자중 32명이 자기농사외의 수입을 얻고 있는 셈이다.

자기농사외에 소득활동을 하는 이유는 자기 농사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자녀의 학용품비나 용돈 마련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농사로 수지가 맞는다면 자기 농사외의 일은 그만 두겠다는 농가가 16호 있었는데, 이는 수지가 맞더라도 일을 하고 싶다는 농가(10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력이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농외소득활동을 희망하고 있었다.

농사외의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들고 있는 것은 노동이 가중되어 힘이 드는 것이며, 교통편이 없어서 통근하기에 불편한 점을 들고 있었다.

농사외의 일로서 여성들이 원하는 직종은 공장취업이 가장 많았으며 직종에 상관없이 일하고 싶다는 부인도 있었다. 그때 직장의 위치는 자택에서 통근하기 쉬운 마을에서 가까운 곳이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사. 건강 및 복지실태

농촌 여성의 건강은 과중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 장시간 지속적으로 작업을 해야 하며 노동 강도가 높

고 불편한 자세의 작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기 쉽다.

1970년대 이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여성의 영농 참여가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소위 농부증이라고 하는 증세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으게 되었고, 최근에는 시설원예가 늘어나면서 비닐하우스내에서의 작업에 여성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농업인력이 노령화되면서 여성의 농업노동력도 노령화되어 농작업에서 손을 떼고 휴식을 가져야 할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년기에 겪는 육체적 고통이 크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여성 건강의 실태를 보면 전체 조사농가 121호 중 75농가의 부인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었거나 현재에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주된 증상으로는 관절염, 신경통, 요통등 농업노동의 과중으로부터 오는 증상이 대부분이었다.

조사지역 농촌 여성들 중에서 모자보건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으며, 분만도 대부분 집에서 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출산 후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바로 농사에 참여해야 하므로 부인들의 건강은 더욱 염려가 되는 실정이다.

조사지역의 주거환경은 한옥이 대부분이며 이 중 양옥은 16호이었고, 읍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취학자녀와 일부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농가도 2호 있었다.

산간지역인 대양마을의 경우는 가까운 금산읍에 아파트를 가지는 계획을 하고 있는 부인들이 많았다. 농촌 마을에 그대로 집을 두고 또 읍에도 아파트와 같은 도시주택을 소유하여 출입경작의 형태로 농사를 유지하면서 자녀교육을 비롯한 문화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이 대부분의 젊은 부인들의 의향이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서 자녀들 교육문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따로 자취를 시켜야 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한 교육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막고, 여성 자신도 편리한 생활 환경을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화장실은 121농가중 93농가가 재래식이었으며, 21농가가 옥외에 개량

한 화장실이었고, 수세식은 7농가 있었다.

주택 개량을 한 농가는 21농가이고, 10농가가 신축을 하였을 뿐 대부분의 농가가 재래식 한옥에서 그대로 생활하고 있다.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읍내까지 나가야 하므로 작업후에 바로 피로를 풀 수 없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많은 부인들이 마을에 공동목욕탕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수도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간이 상수도 또는 자가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난방방법은 연탄을 사용하는 농가가 68호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가 30호 있었다. 석유보일러를 설치한 농가는 18호였으며, 취사연료는 대부분 가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는 121호중 44농가로 나타났으며, 탈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도 36호로 가전제품의 보급이 상당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전화는 조사농가중 10호의 농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유하고 있었으며, 교통수단으로는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15호로 부인이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는 농가도 3호 있었다. 자동차 보유농가는 3호 있었다.

조사마을에는 여성들이 모여서 담화를 나누고 취미생활을 같이 할 만한 장소가 없었다. 마을회관이 있었으나 대부분 노인들을 위한 장소이거나 남자들 위주의 장소로 사용될 뿐이어서 여자들이 편하게 자주 모일 만한 곳이 되지 못하였다. 모일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자주 모이지 못하니까 부인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었다. 복지회관 같은 여성의 집 또는 여성들만의 장소가 마련되면 여성들이 좀더 마을일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 여가 및 취미활동

조사지역 농촌 여성들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여가생활을 즐기기 보

다는 그 시간을 소득증대를 위해 일하겠다는 부인이 많았다. 조사농가중 50호가 이런 의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밖에는 아무일도 하지 않고 그냥 편히 쉬고 싶다는 농가도 40호가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농업노동의 과중함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고령층의 부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단위농협이나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여성교육에 관한 관심은 젊은 부인에게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심있는 교육 내용은 주로 가족의 건강과 생활설계, 농사경영, 영양개선이었다.

한편 여성들의 관광여행은 대부분 친목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친목계 이외의 가족여행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회관과 같은 모일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성들의 여가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취미활동도 빈약하다. 읍면단위에서 여성을 위한 정기적인 모임을 기획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촌여성들의 취미생활을 다양하게 유도해 줄 필요가 있다.

자. 부녀회 활동

마을마다 조직되어 있는 부녀회는 새마을운동이 한창 전개되던 1970년대에는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뚜렷한 활동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당시에는 마을에서 구판장을 운영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 마을의 애경사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었다. 이에 반해 근래에는 마을 청소를 한다거나 경노잔치에 음식을 장만하여 노인들에게 대접하는 정도로 활동이 축소되었다.

이와 같이 부녀회 활동이 축소된 것은 인력 부족에 따라 여성들의 영농참여가 늘어나면서 개별적인 농업활동에 시간을 투하하여 부인들끼리 모여서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 큰 이유이다.

또한 농가경제의 악화로 자기농사 외에도 임노동을 해야 한다든가 농업외의 노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증가되고 있는데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부녀회 조직은 마을에 따라서는 50대 이상의 부인들로만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30, 40대 여성들은 이에 참여하지 못하여 결국 부인회가 노령화된 것도 부녀회의 활성화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평야지역의 야화마을의 경우가 이와 같은 경우로서 부녀회가 젊은 부인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될 필요가 있었다.

앞으로의 부녀회는 좀더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생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주부로서만이 아닌 농업 종사자로서의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때이다. 이는 부인들 스스로의 구체적인 자각은 아니지만, 부인들이 모두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 간접적으로 파악될 수 있었다.

제 4 장

농촌 여성의 의식 변화

1. 농촌 여성의 의식 변화

그간 우리나라 농촌은 공업 위주의 성장정책 속에서 매년 수십만의 인구 유출을 겪어 왔고 농업의 상대적 저투자로 농업의 근대화는 타산업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농민들의 전통적인 의식과 가치관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와 「농자천하지대본」이던 농업은 국가산업에서 차지하는 실질적 의미뿐만 아니라 농업의 상징적 의미 역시 그 비중이 약화되었으며, 도시의 외형적 번성에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농촌환경에 농민들은 불만을 느끼고 또한 소외의식이 누적되어 왔다. 이와 같은 농민의식은 바로 농업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를 가져 왔다.

농촌사회의 변화 속에서 농가경제의 담당자로서, 또한 농업노동참여자로서 농촌 여성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왔다. 농촌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전통적인 요소가 더욱 강하게 남아 있으나, 근대적인 요소가 점점 강해지면서 가치관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농업에 대해서는 남성과 더불어 비판적인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으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여성의 영농 참여 증대가 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농업에 대한 관심은 농산물가격과 같은 농가경제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심을 갖는 것이며, 이는 바로 농업정책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볼 수 있다. 즉, 직업인으로서 농업에 대한 이해관계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농업 종사자로서 여성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여성의 농업에 대한 가치관은 농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서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나아가서 농촌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본장에서는 주부로서의 농촌여성이나 농사 보조자로서의 여성이라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농촌의 현장에서 농업을 실천하는 행위자라는 시각으로 농촌 여성의 의식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한다.

가. 농촌 여성의 직업의식

농촌 여성이 단지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주민이 아니고,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취업자라는 인식하에 농촌 여성의 직업의식을 중심으로 농업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하였다.

농촌 여성이 자신을 주부나, 가업의 보조자로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농업 종사자로서 인식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여 보았다. 이는 농촌여성의 농업생산주체로서의 정체감(正體感: 아이덴티티)을 확인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족농의 형태가 주된 농업경영형태인 우리나라는 가족구성원이 바로 농업경영단위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의 행위와 의식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지역 농촌 여성이 농사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자기 역할은 121호의 조사농가중 36명이 농촌여성은 도시취업여성과 마찬가지로 농업에 종사하는 취업 여성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4-1 농가 부인의 자기 인식

단위 : 명

구 분	주 부	남편과 같은정도	적극적인 농업인	무응답	계
근 교	7	16	9	5	37
평 야	2	20	7	2	21
중 간	5	5	9	1	20
산 간	1	18	11	3	33
계	15	59	36	11	121

또한 50명의 농가부인은 농촌 여성은 남편과 마찬가지로 일하지만 경영주는 아니라고 응답하였고, 15명은 주부로서의 역할이 주된 것이고 농사는 남편이나 가족을 도와주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조사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조사농가의 1/3 정도는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반수 정도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남편과 동등하게 농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모두 합치면 조사농가부인의 2/3는 본인의 직업을 농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촌 여성의 직업의식은 연령별로는 30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경영규모별로는 1.0~2ha의 규모의 농가계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4-2 농가 부인의 연령별 자기 인식

단위: 명

구 분	주 부	부부 농업 종사자	적극적인 농업인	무응답	계
20대	0	3	2	1	6
30대	6	4	7	3	20
40대	2	13	8	1	24
50대	4	19	10	1	34
60대 이상	3	20	19	5	37
계	15	59	36	11	121

표 4-3 농가 부인의 영농규모별 자기 인식

단위: 명

구 분	주 부	부부 농업 종사자	적극적인 농업인	무 응 답	계
0.5ha 미만	5	21	11	7	44
0.5 ~ 1.0ha	4	17	13	2	36
1.0 ~ 2.0ha	4	11	9	2	26
2.0ha 이상	2	10	3	0	15
계	15	59	36	11	121

표 4-4 농가 부인의 학력별 자기 인식

단위: 명

구 분	주 부	부부 농업 종사자	적극적인 농업인	무응답	계
무 학	5	32	15	5	57
국 졸	8	33	18	4	52
중 졸	1	2	3	2	8
고 졸	1	3	0	0	4
계	15	59	36	11	121

나. 농업에 대한 만족도

농촌 여성의 농업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의 가정이 농사를 지으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해 보았다.

농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응답자 121명중에 3명만이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비교적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여성은 21명이었다. 「그저 그렇게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41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라고 하는 농가는 28명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응답자와 거의 같은 수의 응답이었다. 「약간 불만」이라고 한 응답자를 포함하여 농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응답자는 만족한다는 응답자수를 능가하였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1980년(김동일, 「한국농촌주민의 삶의 질」)과 1984년(농협, 「농촌부녀자의 의식과 역할」)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 조사에서는 여성 응답자 58%가 농사일에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남성의 경우는 51%로 여성보다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4년의 조사결과에서는 전체조사응답자 1030명중 14.5%가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비교적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28.8%로 농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농촌 여성은 전체 응답자의 43.3%이었다(표 4-6).

표 4-5 농가 부인의 농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매우 만족	비교적 만족	그저 그렇다	약간 불만	매우 불만	무응답	계
근 교	2	6	8	4	11	6	37
평 야	0	5	13	5	6	2	31
중 간	0	6	8	1	4	1	20
산 간	1	4	12	8	7	1	33
계	3	21	41	18	28	10	121

표 4-6 농촌 부녀자 농업 만족도

구 분	응답자수	%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149	14.5
비교적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297	28.8
그저그렇다.	348	33.8
약간 불만스럽다.	152	14.8
매우 불만스럽다.	44	4.3
무 응 답	40	3.9
합 계	1,030	100.0

자료 : 농협, 「농촌부녀자의 의식과 역할」, 1984.

이 두 가지 조사결과와 본 조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농업에 대한 여성의 만족도는 점점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업의 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농촌 여성의 영농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의 농업에 대한 평가가 점점 저하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농업에 대한 만족도를 연령별로 보면(표 4-7)과 같이 연령계층간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20, 30대에서 비교적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40대이상에서 불만이 많았다. 이는 1984년의 조사에서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표 4-8).

이 같은 경향은 농업노동에 여성 참여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노동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동을 강요받아야 한다는 현실여건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능력이 있는 20~30대에는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농사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그만큼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도의 조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1980년은 연령계층을 50세 이상과 49세 이하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곤란하나, 변화를 알기 위해 비교해 본다면 1980년은 50세 이상 계층에서 49세 이하 계층보다 더 만족도가 높았다(표 4-9). 이러한 현상은 1970년

표 4-7 농가 부인의 연령별 농업 만족도

단위: 명

구 분	매우 만족	비교적 만족	그저 그렇다	약간 불만	매우 불만	무응답	계
20대	0	1	2	2	0	1	6
30대	1	4	6	1	5	3	20
40대	0	5	5	5	8	1	24
50대	1	6	13	4	8	2	34
60대 이상	1	5	15	6	7	3	37
계	3	21	41	18	28	10	121

표 4-8 농촌 주민의 농업 만족도

단위: %

구 분	만 족	불 만 족
연령		
50세 이상	65	35
49세 이하	46	54
성별		
남	51	49
여	58	42

자료: 김동일외, 「한국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농경연, 1982.

표 4-9 연령별 농촌 부녀자 농업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 연 령 별	20 대	30 대	40 대	50대 이상	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21 9.6	39 11.8	55 19.3	34 17.3	149 14.5
비교적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70 32.1	94 28.4	77 27.0	56 28.6	297 28.8
그저 그렇다.	78 35.8	113 34.2	90 31.6	67 34.2	348 33.8
약간 불만스럽다.	36 16.5	57 17.2	33 11.6	26 13.3	152 14.8
매우 불만스럽다.	7 3.2	13 3.9	15 5.3	9 4.6	44 4.3
무 응 답	6 2.8	15 4.5	15 5.3	4 20	40 3.9
합 계	218	331	285	196	1,030

자료: 농협, 전게서.

대의 급격한 이농현상과도 결부될 수 있을 것이다. 농업에 대한 불만을 이농으로 실행할 경우 그들이 치뤄야 할 경제적 심리적 대가를 극복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농업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

다. 20대, 30대 여성들은 이농후 새로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크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불만 역시 클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농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젊은 층에서 보다 클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40세 이상의 장년, 고령층의 부녀자들은 기존의 생활에서 만족을 구하려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서 1992년 현재 상황은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농현상은 있으나 1970년대와 같은 급격한 이농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젊은 계층의 경우 농업에 대한 인식만 제대로 가지면 농업으로도 생활할 수 있고 도시 이농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만은 않는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반면에 고령층은 이농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1970년대 1980년대와 동일하지만 고령층이 안고 있는 소외의식,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만족도가 그만큼 저하된 것으로 이해된다.

농업에 대한 만족도를 경영규모별로 보면 (표 4-10)과 같이 규모와 농업의 만족도는 직접적인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조사결과는 중농층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영세소농의 경우 농외소득원이 있거나 여성의 농작업 부담이 비교적 적은 것에 비해 중농의 경우는 여성의 영농 참여는 많은 반면 그에 대한 소득이 미흡한데서 오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4-10 **농가 부인의 영농규모별 농업 만족도**

단위: 명

구 분	매우 만족	비교적 만족	그저 그렇다	약간 불만	매우 불만	무응답	계
0.5ha 미만	0	8	17	4	8	7	44
0.5~1.0ha	2	8	9	2	13	2	36
1.0~2.0ha	1	2	11	9	2	1	26
2.0ha 이상	0	3	4	3	5	0	15
계	3	21	41	18	28	10	121

표 4－11 영농규모별 농촌 부녀자 농업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 연령별	0.5ha	0.5 ~ 1.0ha	1.0 ~ 1.5ha	1.5 ~ 2.0ha	2.0ha	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35 12.2	53 13.9	27 14.4	21 21.2	13 17.1	149 14.5
비교적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63 22.0	112 29.4	66 35.1	31 31.3	25 32.9	297 28.8
그저 그렇다.	116 40.6	127 33.3	55 29.3	22 22.2	28 36.8	348 33.8
약간 불만스럽다.	49 17.1	59 15.5	27 14.4	11 11.1	6 7.9	152 14.8
매우 불만스럽다.	10 3.5	18 4.7	5 2.7	9 9.1	2 2.6	44 4.3
무 응 답	13 4.5	12 3.2	8 4.3	5 5.1	2 2.6	40 3.9
합 계	286	381	188	99	76	1,030

자료: 농협, 전게서.

그러나 1984년의 조사결과에서는 1.5~2.0ha규모에서 52.5%가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다른 규모계층에 비해 가장 만족하고 있었다. 반면 0.5ha 미만에서는 34.2%의 여성만이 만족을 표시함으로써 대체로 농업에 대한 만족도는 경영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업에 대한 불만은 0.5ha 미만에서 20.6%로 가장 큰 반면 2ha 이상의 경우는 10.5%의 여성만이 불만이라고 응답하였다(표 4－11).

한편 농업에 대한 만족도는 1984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학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표 4－12). 본 조사에서는 고졸 이상의 학력 해당자가 적어서 직접 비교할 수 없었으며, 무학의 고령자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력별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웠다(표 4－13).

이상과 같이 본 조사결과와 1984년의 조사결과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조사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으나 조사시점의 차이에 따른 농업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라고도 보여진다.

표 4－12 학력별 농촌 부녀자 농업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 학력별	무 학	국 졸	중 졸	고졸이상	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9 10.1	84 16.3	42 14.8	14 25.2	149 14.5
비교적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25 28.1	146 28.4	81 28.6	45 48.8	297 28.8
그저 그렇다.	38 42.7	164 31.8	94 33.2	52 85.8	348 33.8
약간 불만스럽다.	13 14.6	69 13.4	47 16.6	23 32.8	152 14.8
매우 불만스럽다.	4 4.5	32 6.2	5 1.8	3 2.2	44 4.3
무 응 답	0 0	20 3.9	14 4.9	6 4.4	40 3.9
합 계	89	515	283	143	1,030

자료: 농협, 전게서.

표 4－13 농가 부인의 학력별 농업 만족도

단위: 명

구 분	매우 만족	비교적 만족	그저 그렇다	약간 불만	매우 불만	무응답	계
무 학	0	9	22	8	12	5	57
국 졸	3	8	15	8	14	3	52
중 졸	0	4	1	0	2	1	8
고 졸	0	0	1	2	0	1	4
계	3	21	39	18	28	10	121

농업에 대한 만족도는 개별농가의 영농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넓게는 농업정책에 따라서 큰 폭을 가지면서 변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농규모가 농가소득을 결정하는 주요인임을 부인할 수 없으나 점차 농업이 상업화됨으로써 단순히 경영규모만이 아니라 영농형태 역시 농가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84년의 조사에서 영농형태별로 농업의 만족도(표 4－14)를 보면 과

표 4－14 영농형태별 농촌 부녀자 농업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 영농형태	식량작물	채소	시설원예(비닐하우스)	과수	축산	특용작물	농업이외의 소득	기타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82 14.3	9 17.6	7 15.6	10 15.2	15 14.6	9 12.2	15 17.0	2 6.7
비교적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159 27.8	14 27.5	11 24.4	28 42.4	42 40.8	19 25.7	18 20.5	6 20.0
그저 그렇다.	202 35.3	17 33.3	20 44.4	12 18.2	28 27.2	22 29.7	29 33.0	18 60.0
약간 불만스럽다.	87 15.1	6 11.8	6 13.3	7 10.6	10 9.7	16 21.6	20 22.7	1 3.3
매우 불만스럽다.	26 4.6	3 5.9	0 0.0	3 4.5	5 4.9	5 6.8	0 0.0	2 6.7
무 응 답	17 3.0	2 3.9	1 2.2	6 9.1	3 2.9	3 4.1	6 6.8	1 3.3
합 계	568	51	45	66	103	74	88	30

자료: 농협, 전게서.

수농가의 부인이 가장 큰 만족을 표시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축산, 시설원예(비닐하우스), 채소의 순으로 만족을 표시하고 있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볼 때 농업에 대한 만족도는 단순히 영농규모보다는 영농형태가 농업에 대한 만족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992년 본조사에서는 경영형태가 다양하지 못하여 뚜렷한 차이를 알 수는 없었다. 그러나 개별농가의 인터뷰에서 받은 인상은 1992년 조사지역에서도 상업적인 영농의 농가일수록 농업에 대해서 적극적이며, 불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농업자체에 대한 불만이라기 보다는 자녀교육이나 농촌환경문제와 같은 여러가지 농업외의 요인이 복합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다. 농촌의 미래관

농업생산의 場으로서, 또한 생활터전으로서 농촌 여성들이 생각하는

농촌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 「농촌의 미래는 도시에 비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해 보았다.

조사결과 (표 4-15)와 같이 전체 응답자 121명중 76농가부인이 도시보다 농촌이 못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농촌이 더 나으리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24명에 불과하였다. 이 결과는 같은 내용의 질문으로 조사한 1984년 조사결과에 비해 비관적임을 알 수 있다. 1984년 조사에서는 농촌의 전망을 상대적으로 밝게 보는 견해는 19.6%였으며, 도시의 전망을 밝게 보는 견해는 32.5%로 도시가 농촌보다 살기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 또한 농업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농촌의 상대적 빈곤감, 낙후감이 더욱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표 4-15 농가 부인의 농촌 미래관

구 분	도시가 훨씬낫다	도시가 약간낫다	비슷할것 같다	농촌이약간 나을것같다	농촌이훨씬 나을것같다	무응답	계
근 교	10	13	1	3	4	6	37
평 야	14	5	3	4	2	3	31
중 간	6	5	1	5	2	1	20
산 간	20	3	2	4	0	4	33
계	50	26	7	16	8	14	121

표 4-16 농가 부인의 연령별 농촌 미래관

단위: 명

구 분	도시가 훨씬 낫다	도시가 약간 낫다	비슷할 것 같다	농촌이 약간 낫다	농촌이 훨씬 낫다	무응답	계
20대	3	1	0	1	0	1	6
30대	4	5	3	5	1	2	20
40대	14	4	1	3	0	2	24
50대	15	6	1	3	4	5	34
60대 이상	14	10	2	4	3	4	37
계	50	26	7	16	8	14	121

본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표 4-16)과 같이 연령별로 농촌과 도시에 대한 전망은 의미있는 차이를 두지 않았으나 30대가 비교적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4년 조사(표 4-17)에서도 같은 결과로서 앞으로 농업을 계승해 갈 젊은 연령층에서 도시와 농촌의 상대적 전망에 관해 그다지 비관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사실로 생각된다.

(표 4-18)과 같이 학력별로 농촌에 대한 전망은 학력이 낮을수록 농촌의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한 반면, 고졸 학력의 여성을 제외하면 농촌의 전망을 밝게 생각하는 여성도 많았다. (표 4-19)에서는 고졸 이상의 50% 정도가 「도시와 농촌이 비슷해질 것이다」고 응답하고 있어 고학력층의 농촌 전망이 어둡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농규모는 (표 4-20)과 같이 농촌의 전망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답자수로 보다면 소농보다는 중농이 좀더 낙관적이었다. 1984년 조사결과(표 4-21)에서는 2ha 이상의 대농층에서

표 4-17 연령별 농촌에 대한 전망

단위: 명, %

구 분 \ 연령별	20 대	30 대	40 대	50대 이상	계
도시가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32 14.7	46 13.9	52 18.2	29 14.8	159 15.4
도시가 약간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36 16.5	62 18.7	44 15.4	34 17.3	176 17.1
도시와 농촌이 비슷해질 것이다.	82 37.6	123 37.2	98 34.3	58 29.6	361 35.0
농촌이 약간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28 12.8	29 8.8	31 10.9	26 13.3	114 11.1
농촌의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14 6.4	29 8.8	30 10.5	15 7.7	88 8.5
잘 모르겠다.	23 10.6	39 11.8	28 9.8	32 16.3	122 11.8
무 응 답	3 1.4	3 0.9	2 0.7	2 1.0	10 1.0
합 계	218	331	285	196	1,030

자료: 농협, 전게서.

표 4－18 농가 부인의 학력별 농촌 미래관

단위: 명

구 분	도시가 훨씬 낫다	도시가 약간 낫다	비슷할 것 같다	농촌이 약간 낫다	농촌이 훨씬 낫다	무응답	계
무 학	28	13	2	4	3	7	57
국 졸	16	11	4	10	5	6	52
중 졸	3	1	1	2	0	1	8
고 졸	3	1	0	0	0	0	4
계	50	26	7	16	8	14	121

표 4－19 학력별 농촌에 대한 전망

단위: 명, %

구 분 \ 연령별	무 학	국 졸	중 졸	고졸이상	계
도시가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15 16.9	94 18.3	39 13.8	11 7.7	159 15.4
도시가 약간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23 25.8	80 15.5	49 17.3	24 16.8	176 17.1
도시와 농촌이 비슷해질 것이다.	25 28.1	163 31.7	102 36.0	71 49.7	361 35.0
농촌이 약간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5 5.6	60 11.7	33 11.7	16 11.2	114 11.1
농촌의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5 5.6	42 8.2	33 11.7	8 5.6	88 8.5
잘 모르겠다.	16 18.0	69 13.4	26 9.2	11 7.7	122 11.8
무 응 답	0 0	7 1.4	1 0.4	2 1.4	10 1.0
합 계	89	515	283	143	1,030

자료: 농협, 「전게서」.

표 4－20 농가 부인의 영농규모별 농촌 미래관

단위: 명

구 분	도시가 훨씬 낫다	도시가 약간 낫다	비슷할 것 같다	농촌이 약간 낫다	농촌이 훨씬 낫다	무응답	계
0.5ha 미만	16	15	0	3	4	6	44
0.5～1.0ha	14	4	6	5	3	4	36
1.0～2.0ha	14	2	0	6	1	3	26
2.0ha 이상	6	5	1	2	0	1	15
계	50	26	7	16	8	14	121

표 4-21 영농규모별 농촌에 대한 전망

단위: 명, %

구 분 \ 연령별	0.5ha 미만	0.5~1.0ha	1.0~1.5ha	1.5~2.0ha	2.0ha 이상	계
도시가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38 13.3	69 18.1	26 13.8	16 16.2	10 13.2	159 15.4
도시가 약간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46 16.1	70 18.4	31 16.5	22 22.2	7 9.2	176 17.1
도시와 농촌이 비슷해질 것이다.	111 38.8	127 33.3	71 37.8	28 28.3	24 31.6	361 35.0
농촌이 약간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31 10.8	33 8.7	19 10.1	15 15.2	16 21.1	114 11.1
농촌이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18 6.3	33 8.7	22 11.7	6 6.1	9 11.8	88 8.5
잘 모르겠다.	40 14.0	47 12.3	15 8.0	11 11.1	9 11.8	122 11.8
무 응 답	2 0.7	2 0.5	4 2.1	1 1.0	1 1.3	10 1.0
합 계	286	381	188	99	76	1,030

자료: 농협, 「전게서」.

가장 농촌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다른 농가와는 달리 농촌의 전망이 도시보다 밝다고 전망하고 있다.

2. 농촌 여성의 농업 특성 평가

가. 농업의 특성평가

농촌 여성이 직업으로서 농업을 어떻게 평가하는 가를 알기 위해 농업의 장단점을 조사하여 보았다. 먼저 장점에 대해서는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들고 있었으며, 다음이 「정신적으로 안정이 된다」, 「노력한 만큼 생산이 된다」는 점을 들고 있었다(표 4-22).

단점으로는 노동이 과다하다는 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노력한

대가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표 4-23).

농업에 종사함으로써 자가식량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여성이 많았다는 것은 농가경제내에서 가계비 충족도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가공식품 구입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으며, 또한 경영형태가 단작화되어 필요한 식료품을 구입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짐을 볼 때

표 4-22 농촌 여성이 평가하는 농업의 장점

단위: 명

구 분	도시근교	평 야	중 간	산 간	계
정신적으로 안정이 된다	5	10	4	8	27
인간관계에 얽메이지 않아도 된다	4	2	3	3	12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	16	15	4	10	45
노력한 만큼 생산이 된다	2	3	3	7	15
작업환경이 건강에 좋다	4	4	4	2	14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6	1	1	1	9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2	0	0	0	2
한철만 일하면 쉴 수 있다	1	1	1	4	7
장점이 없다	1	2	2	2	7
계	41	38	22	37	138

주: 중복응답임.

표 4-23 농촌 여성이 평가하는 농업의 단점

단위: 명

구 분	도시근교	평 야	중 간	산 간	계
노동이 과다하다	16	19	15	18	68
자연에 의한 제약이 크다	3	3	2	6	14
노력한 대가가 미흡하다	14	14	7	11	46
생활환경이 불편하다	3	1	1	4	9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0	2	0	0	2
일손이 부족하다	0	1	1	2	4
경영주라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0	0	1	0	1
별로 나쁘지 않다	0	1	0	0	1
계	36	41	27	41	145

농업의 장점으로서 자급자족의 의미는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식량의 자급자족이라는 농업의 장점을 농민스스로가 재인식하도록 농가 생활 패턴이 가계비 충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점중에 「정신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점은 여성들이 농업을 긍정적인 직업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적인 판단을 해 볼 수 있다. 농업 이외의 타직업에서는 복잡한 인간관계에 얽혀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많으며, 상하직위에 따른 부자유스러운 점이 많다는 점을 여성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이 직업으로서 매력을 가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노동과다의 문제는 여성 스스로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농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여 영농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농작업을 기계화 함으로써 노동강도를 줄이는 것은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다른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노력에 대한 대가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여성만이 인식하고 있는 농업문제라기 보다는 농업자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농산물 가격정책이나 농산물 수입자유화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민감한 반응과도 결부될 수 있는 문제이다. 농업을 직업으로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소득을 결정하는 농산물가격이 정책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면 농업에 취업하려는 의사는 그만큼 감소되고 불안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타직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직업으로서의 가치는 저하될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소득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는 (표 4-24)와 같이 거의 전체 응답자가 타직종에 비해 농업수입이 낮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 중 타직종에 비해 낮지만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44명이었다. 농업소득에 대한 이같은 평가는 농촌 여성의 관심이 농외소득을 통한 소득 증대로 모아지게 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표 4－24 타직종과 비교한 농업수입에 대한 평가

	수입이 높고 안정적	수입은 높으나 불안정	타직종과 비슷	수입은 낮지만 안정적	수입도 낮고 불안정	계
도시근교	0	0	0	15	17	32
평 야	0	1	0	22	7	30
중 간	2	0	1	2	15	20
산 간	0	0	0	5	25	30
계	2	1	1	44	64	112

농업소득에 대한 평가를 1980년 조사자료(표 3－25)와 비교해 보면 1980년 조사에서도 농업소득에 대해서 만족하는 여성은 13%에 불과하였으나 10년 전에 비해 현재가 더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농업이 직업으로서의 매력을 느끼기에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사지역의 부인들이 농사일을 하는데 어려운 점으로는 농사일이 힘에 겹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복수응답) 124명 중에서 90명이 농사일이 힘에 부친다고 하였고, 농사에 관한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과 농기계 사용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농기계 사용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밖에도 농사일을 하기 때문에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는 등 가사활동에 지장이 있음을 열거하였다(표 4－26).

표 4－25 농촌 주민의 농업소득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만 족	불 만 족
연 령		
50세 이상	18	82
49세 이하	15	85
성 별		
남	18	82
여	13	87

자료 : 김동일, 「전게서」

표 4－26 농가 부인의 영농 애로사항

단위: 명

구 분	도시근교	평 야	중 간	산 간	계
농사일이 힘에 겹다.	29	23	12	26	90
농사에 관한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하다	1	5	1	0	7
농기계 사용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농기계 사용이 어렵다	2	0	0	4	6
자녀를 돌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	0	6	4	4	14
가사를 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	1	4	1	0	6
농사를 지어도 중요한 결정은 남편(시부모)이 다 하므로 소신껏 농사지을 수 없다	0	0	1	0	1
계	33	38	19	34	124

나. 농업의 자녀 승계

여성들의 자녀 직업에 대한 선호도는 여성들의 사회의식의 반영이자,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우리 나라 농업은 가족농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녀에게 농업을 계승시킨다는 것은 영농후계자 확보의 문제와도 관계된다.

조사지역의 여성중 「아들에게 농업을 계승시킬 의사가 있다」는 부인은 전체 응답자 115명중 10명에 불과하였다. 「본인에게 맡기겠다」고 한 응답자는 37명으로 두 응답자를 합치더라도 「반대하겠다」는 68명에는 훨씬 못미친다(표 4－27).

표 4-27 농가 부인의 농업 승계의사(아들)

구 분	찬 성	반 대	본인에게 맡 김	계	
근 교	1	23	8	5	37
평 야	4	16	11	0	31
중 간	4	9	6	1	20
산 간	1	20	12	0	33
계	10	68	37	6	121

아들에게 농업을 승계시킬 의사가 있는 응답자는 다른 응답자에 비해 비교적 농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농업에 대한 직업의식이 높은 부인들이었다. 이들은 조사지역내에서 비교적 경영규모가 큰 농가부인들이었으며, 대부분 수도작과 함께 하우스나 축산, 과수를 경영하고 있었다.

소득은 타직종에 비해 낮지만 농업은 직업으로서 안정적이며, 자급자족을 할 수 있고 또한 노력한 만큼 생산이 된다는 것을 장점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들은 농업의 단점으로는 노동이 과다한 것을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농가부인은 농업을 대대로 이어갈 가업으로 생각하는 부인은 극히 적으며, 이는 농업소득의 저위성, 농업노동의 과중함, 농촌생활환경의 열악함, 도시와의 상대적 저발전에 대한 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상업농 위주의 복합경영으로 농가소득이 비교적 안정된 농가부인의 경우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아들에게 영농의사가 있다면 그에 찬성할 뜻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업과 농촌의 비전에 따라서는 농업이 가업으로서 승계될 가능성도 보여진다.

는 37명으로 이 두 응답자를 합치더라도 반대하겠다는 68명에는 훨씬 못 미친다.

한편「딸이 농사짓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표 4-28 농가 부인의 농업 승계의사(딸)

구 분	찬 성	반 대	본인에게 맡김	무응답	계
근 교	1	27	4	5	37
평 야	0	26	5	0	31
중 간	1	14	5	0	20
산 간	1	18	14	0	33
계	3	85	28	5	121

대해서는 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반대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찬성하겠다는 응답자와 본인에게 맡긴다는 응답자를 합쳐도 31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응답자가 여성인 만큼 농촌에서 영농에 참여하여 농작업을 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 노동인가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3. 농촌 여성의 농업정책에 대한 요망사항

농촌 여성의 주요관심은 경제적인 문제에 집약되어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여성들은 어떤 정책이 실행되기를 바라는가.

조사결과를 보면 (표 4-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장 많은 응답의 내용은 농산물을 제값받도록 보장해 달라는 것과 농산물의 수입자유화를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이 농외소득증대에 힘써야 한다는 등 농업외적인 것이었다. 1984년 조사결과(표 4-30)에서도 이 결과와 거의 같은 내용이 열거되었으나 당시는 농산물 수입 자유화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응답에서는 빠져 있었다. 그 대신 「신품종·농사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힘써야 한다」, 「경지 정리, 농로 개설, 농로 포장에 힘써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농업내적인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의 증대와 관한 응답이 소수이기는 하나 포함되었다.

농촌여성들은 농업생산량의 증대보다는 가격문제가 소득증대의 주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부녀자의 의식은 그동안 농업생산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실질소득이 호전되지 못했던 현실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하며, 가격이 보장되지 않는 한 생산의 증가는 농가의 소득증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농외소득원의 증대정책을 희망하고 있는 것은 농업소득의

한계를 인식하고 농외소득을 얻을 수 있는 안정된 소득원이 창출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나타낸다.

1984년 조사에서 나타난 소득 증대방안에 대한 요구는 영농규모가 클수록 농산물 가격보장에 대한 응답이 크게 나타났으며, 농외소득 증대에 대한 응답은 영농규모가 작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었다.

표 4－29 농촌 여성의 대정부 건의사항

구 분	도시근교	평 야	중 간	산 간	계
농촌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1	2	1	1	5
농지구입·자금, 영농자금의 저리대출	1	6	2	1	10
농외소득 증대	1	5	1	0	7
쌀 수매가격 인상	0	8	2	1	11
인력 부족대책 수립	0	0	0	1	1
진흥지역 설정 반대	1	3	0	0	4
농산물 유통 개선	0	2	0	0	2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1	1	2	3	7
주택 개량	3	2	4	1	10
	8	34	12	8	57

표 4－30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가 가장 힘써야 할 일, 1984

	계	연령별				영농규모별				
		20대	30대	40대	50대	0.5ha 미만	0.5～1.0ha	1.0～1.5ha	1.5～2.0ha	2.0 이상
경지정리·농로개설·도로포장에 힘써야 한다.	72	12	32	18	10	19	24	20	5	4
	7.0	5.5	9.7	6.3	5.1	6.6	6.3	10.6	5.1	5.3
신품종·농사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힘써야 한다	147	36	50	41	20	32	62	24	18	11
	14.3	16.5	15.1	14.4	10.2	11.2	16.3	12.8	18.2	14.5
농촌지역에 공장을 많이 세워 농업이외의 소득증대에 힘써야 한다	216	49	70	61	36	70	86	31	13	16
	21.0	22.5	21.1	21.4	18.4	24.5	22.6	16.5	13.1	21.1
비료·농약·농기계 등 영농자재를 싼 값에 공급하는데 힘써야 한다	115	23	33	38	21	39	44	16	8	8
	11.2	10.6	10.0	13.3	10.7	13.6	11.5	8.5	8.1	10.5
농산물을 제값에 팔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440	90	135	116	99	116	153	86	51	34
	42.7	41.3	40.8	40.7	50.5	40.6	40.2	45.7	51.5	44.7
무응답	40	8	11	11	10	10	12	11	4	3
	3.9	3.7	3.3	3.9	5.1	3.5	3.1	5.9	4.0	3.9
합계	1,030	218	331	285	196	286	381	188	99	7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8	100.0	100.0	100.0

자료 : 농협, 「전게서」.

본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응답자가 적기 때문에 영농규모별로 응답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농외소득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인들은 대체로 소규모농가의 부인들이었으며 지역별로는 특히 평야지역에서 농외소득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4. 영농에 적극적인 여성농민상

농가부인을 여성농민으로 규정할 때 이들의 농업에 대한 태도는 농업발전과 장래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가치관을 가진 여성농민이야말로 21세기 한국농업을 담당할 구성원의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조사지역 농가부인들 중에서 농업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부인을 선정하여 이들의 농가경영개황을 살펴보았다.

선정기준은 농업에 대한 만족도, 농사참여도, 자기의 정체감, 자녀의 농업승계의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표 4-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은 전체 응답자 121명중 8명으로 연령별로는 20대가 1명, 30대가 5명, 40대가 3명이었다. 농가형태별로는 전업농이 5명, 겸업농이 4명이었으며, 경영형태는 수도작과 특작 또는 수도작과 축산 등 복합경영농가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논 농사의 경운, 이양, 예취작업은 산간마을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기계위탁작업이었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대부분의 논 농사 작업에는 여성들이 전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전업농의 경우는 부부가 함께 농업에 종사하며, 겸업농의 경우는 여성이 농사를 전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농업은 상업농, 복합영농의 방향으로 발전해 갈 추세이므로 여성들의 영농참여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겸업농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여성의 영농종사자로서의 역할은 더

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영농의욕과 자질을 가진 여성농민에게는 기술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여성농민들을 조직화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정책 수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4－31 농사에 적극적인 부인의 농가경영 개황

농가번호	마을	농가형태	나이	학력	경영규모	수도작형태	농업노동력	아들승계의향	남편직업	비고(주작목)
1	도시근교	겸업농	36	중졸	벼 1000 밭 500(묵힘) 소 14	경우 예취는 위탁 기계작업	부부	본인의사	남편농협근무	(소양축은 부인전담) 부녀회장
2	평야	겸업농	42	중졸	벼 1000	위탁기계	본인	찬성		
3	평야	겸업농	48	국졸	벼 3600 하우스 1000	위탁기계	부부	본인의사		(딸기)
4	평야	겸업농	36	중졸	벼 2050 소 2 개 4 염소 2	위탁기계	본인	반대	건축보조	(수도작)
5	평야	전업농	34	국졸	벼 2800 하우스 1600	위탁기계	부부	본인의사	농업	(딸기)
6	중간	전업농	35	국졸	벼 2000	위탁기계	부부	본인의사	농업	
7	중간	전업농	29	중졸	벼 6400 밭 1600 하우스 1200	자가작업	부부+시어머니	찬성	농업	(오이 땅콩)
8	산간	전업농	31	국졸	벼 800 밭 2000	자가작업	부부+시아버지	반대	농업	(인삼)
9	산간	전업농	49	무학	벼 1400 밭 1450 소 7	자가작업	부부	반대	농업	부녀회장 (인삼)

제 5 장

농촌 여성의 의식 변화에 따른 역할구조

1. 농촌 여성의 역할체계

일반적으로 농촌 여성의 다양한 활동은 농업노동과 같은 가치생산활동(Value productive activities)과 육아, 의식주, 생활관리 등과 같은 노동력 재생산활동 (Labor force reproductive activities)으로 구분되며 기능적으로는 자녀 출산자, 노동자, 가정 생활관리자 등으로 구분된다(ILO. 1987). 이러한 여성의 역할은 시대상황에 따라 매우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또한 사회구조나 문화양식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나타낸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산업화과정의 대량 이농으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은 농촌 여성들의 역할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 노동력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노동분업을 야기시킴으로써 사회성원들의 역할, 지위, 의식의 변화를 수반한다. 전통적인 노동분업에 의하면 농업노동은 남성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 반면, 가사와 육아는 여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결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노동력 구조의 변화에 따라 성별 역할분담 역시 변화하게 된다.

농촌 여성의 역할 변화의 핵심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인식되어 왔던 농업노동에 여성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이며, 이것은 한국농업의 구조적인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 농업의 기본 특징은 가족노작적 소농구조이며, 이농으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를 잔존하고 있는 농가인구의 노동력에 더욱 의존함으로써 소농구조를 유지 존속시켜 가고 있다는 점이다.

본보고서의 제3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농촌 여성은 농가의 주노동력으로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으며, 농촌 여성들의 역할이 가사노동의 담당자라는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농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4장 농촌 여성의 농업에 관한 의식조사 분석에서도 여성이 단순한 주부가 아닌 취업주부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여성들이 농가경영에서 경영주와 동일한, 또는 전적으로 영농에 참여하는 직업인임을 인식하고 있다.

과거에는 농촌 여성이 농가주부로 정의되면서 여성의 농업생산노동이 가사 노동의 연장으로 인식되어 여성의 농업노동력은 현상적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노동하고 있는 '실제적 노동력'(active labor)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이는 농촌 여성, 특히 농가 부인들의 지위가 농민으로 규정되지 않은 데서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농업의 생산주체가 농가단위로 되어 농촌 여성은 경제주체로 드러나지 않고 주부의 지위에 멈추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영농 참여의 비중이 높아지고, 여성 스스로도 농업을 직업으로 의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농촌 여성의 지위는 여성 농민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 농민의 역할은 가족농업경영이라는 특수한 경제기구 안에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재생산역할과 생산역할은 밀접한 상호관련을 갖는다. 특히 농촌가족의 생활구조로 볼 때 가사노동을 포함한 재생산역할은 여성의 농업생산역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여성 농민의 역할체계는 남성 농민과 같을 수는 없다. 여성 농민의 농업생산 역할을 논하기 위해서

는 재생산역할이 아울러 검토되어야 하나 이에 관련된 세부적인 연구는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따라서 여성 농민의 역할체계는 타산업의 취업 여성과 동일한 차원에서 접근하되 가족경영과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여성농민의 생산활동과 재생산활동의 상호관련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역할구조의 분석방법

역할의 변화는 역할 수행자의 영향력 증대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농촌 여성의 생산활동이 보편화되어 여성 농민으로서 지위가 확보되면 농가내에서 여성의 영향력은 증대되기 마련이다.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 즉 권력구조까지 변화시키게 된다.

역할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지위의 변화 그리고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변화는 항상 동일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정내에서 여성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는가의 변화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여성의 역할이 변화되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제5장에서는 가사와 영농에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이 어느 정도 참여하게 되었는가를 조사해 봄으로써 농가내에서 농촌 여성의 역할 변화에 따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역할 변화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의사 결정권의 변화추세를 밝히는 것은 시계열적 비교 분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번 조사와 비교가 가능한 기존자료로는 농협중앙회에서 1984년에 조사한 자료가 있다. 그러나 1984년의 자료는 전국 자료이고, 본자료는 사례조사지역의 자료인 만큼 엄밀하게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조사지역의 농가에서 여성의 역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며, 이를 1984년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농촌 여성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여성들이 가사와 영농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역할구조에 대한 분석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조사문항과 분석방법은 조사결과를 1984년의 조사자료와 비교하기 위하여 당시의 조사문항과 분석방법에 준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사와 영농에 관련된 의사결정의 항목별로 여성의 참여도가 높은 순으로 ①「거의 부인 혼자 결정」②「부인이 주가되어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③「남편이 주가 되어 부인과 상의해서 결정」④「거의 남편혼자 결정」의 4개의 범주로 나누어 이를 통해 농촌의 부인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정도,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정도를 알아보고 그것을 기초로 항목별로 부인의 참여도에 따른 의사 결정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 때 부인의 의사 결정 참여도와 공동참여 혹은 단독참여의 정도는 각 범주에 응답한 비율을 기초로 상호비교가 용이하도록 계수화하였다. 의사 결정방식을 계수화하기 위해 (표 5-1)의 기준에 의거「부인참여점수」와「공동 참여점수」를 구했다. 이 방법에 따르면 항목별로「부인참여점수」는 4~1의 점수를 가지게 되며 중간점은 2.5를 기준으로 4에 접근할 수록 부인의 의사 결정 참여도가 높은 반면 1에 접근할수록 남편의 참여도가 높다.

「공동 참여점수」는 단독결정 혹은 공동결정 여부를 나타내는 계수로 항목마다 1~2점의 점수를 가지게 되며, 1에 접근할수록 남편 혹은 부녀

표 5-1 **부인 참여점수 및 공동 참여점수 산출 기준**

의사결정 방식	부인 참여 점수	공동 참여 점수
① 거의 부인혼자 결정	4	1
② 부인이 주가 되어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	3	2
③ 남편이 주가되어 부인과 상의해서 결정	2	2
④ 거의 남편 혼자 결정	1	1

자의 일방적인 결정의 비율이 높으며, 2에 접근할수록 공동결정의 비중이 크다.

3. 가사 의사결정과 부인의 참여도

가. 금전관리

금전관리에 관련된 의사 결정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가정내에서 부녀자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생각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금전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항목으로서 ① 지출계획의 수립 ② 예금·공제의 가입 ③ 외부로부터의 금전의 융통에 관해 조사했다. 특히, 금전의 융통은 제도적인 기관과 비제도적인 기관으로부터의 차입으로 나누어서 살펴 보았으며, 금전의 액수에 따라서도 의사 결정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①「농협에서 대출받기」②「큰 돈을 이웃에서 융통」③「적은 돈을 이웃에서 융통」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전관리 전반에 거쳐 부인의 의사 결정권이 남편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예금에 관한 결정」「공제(보험) 가입」「농협 대출」「큰 돈을 이웃에서 융통」하는 것에 관한 의사결정은 부인의 단독결정이 각각 10.2%, 9.3%, 7.4%, 7.6%인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 항목들에 대한 부인의 재량권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액의 돈을 이웃으로부터 융통하는 것은 40.6%의 부인이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했으며, 22.6%가 부인이 주가 되어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소액의 금전에 관한 부인의 재량권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에서 제시했던 분석방법에 따라「부인 참여점수」와「공동 참여점수」로 계수화하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부인 참여

표 5-2 금전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단위 : %, 점

구 분	거의부인 혼자결정	부인이 주로결정	남편이 결정	거의남편 혼자결정	가족전원 상의	부인 참여점수	공동 참여점수
지출계획 수립	13.9	23.2	40.7	16.7	3.7	2.36	1.68
예금에 관한 결정	10.2	24.1	41.7	19.4	1.9	2.26	1.69
공제(보험)가입	9.3	21.3	43.5	21.3	1.9	2.19	1.68
농협 대출	7.4	19.4	41.7	25.9	2.8	2.09	1.65
큰돈을 이웃에서 융통	7.6	21.9	45.7	21.0	1.9	2.17	1.70
적은돈을 이웃에서 융통	40.6	22.6	22.6	10.4	1.9	2.97	1.47

점수」의 중간점은 2.5로서 소액의 금전 융통이 2.97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항목들의 「부인 참여점수」는 2.5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공제가입」, 「농협으로 부터 차입」은 2.19, 2.08로 매우 낮은데 이것은 제도적인 기관과의 접촉을 요하는 사항들에 대한 부인의 의사 결정권은 상대적으로 더욱 낮음을 나타낸다.

또한 금전관리에 관한 「공동 참여점수」는 소액의 금전 유통을 제외하고 모두 중간점 1.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서 부인이나 남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소액의 융통은 공동 참여점수가 낮고 부인 참여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것은 부인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번 조사결과를 1984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각 항목별 경향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인의 참여도가 1984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출계획 수립의 경우 1984년은 4.8%가 부인이 혼자 결정하였던 것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13.9%로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는 가사에 관한 의사 결정권이 대부분 부인에게 일임되어 있는 도시가족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가족의 경제형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으로부터 생산의 영

역이 분화됨에 따라 소비기능만을 맡고 있는 도시가족과는 달리, 생산과 소비의 영역이 미분화되어 있는 농촌가족의 경우 금전의 관리는 생산활동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금전관리에 관한 의사 결정권에서 남편의 결정권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남편이 우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남편이나 부인의 단독결정에 비해 부부간의 공동결정의 비율이 높은 것 역시 생산과 소비의 미분화로 인해 부부간의 의사결정권의 분화가 낮다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별로 금전관리에 관한「부인 참여점수」는 일관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20대 연령층을 제외하면 연령이 많을수록 의사 결정참여도가 약간씩 높아진다. 이것은 결혼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정내에서 부인의 발언권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20대 연령층의 부인은 (표 5-3)에 나타난 바와 같이 30대 40대에 비해 부인의 영향력이 남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20대 연령층의 경우 시부모와 동거하는 농가는 시부모의 의사 결정권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5-3 금전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점수(연령별)

단위 : 점

구 분		20대	30대	40세	50대 이상
지출계획의 수립	부인참여점수	2.33	2.94	2.09	2.30
	공동참여점수	2.0	1.71	1.77	1.62
예금에 관한 결정	부인참여점수	2.50	2.65	2.05	2.22
	공동참여점수	2.0	1.65	1.77	1.65
공제의 가입	부인참여점수	2.25	2.53	2.05	2.15
	공동참여점수	2.0	1.71	1.77	1.62
농협에서 차입	부인참여점수	2.33	2.29	3.09	2.07
	공동참여점수	2.0	1.71	1.68	1.60
큰 돈을 이웃에서 융통	부인참여점수	2.33	2.38	3.70	2.15
	공동참여점수	2.0	1.69	1.76	1.67
소액의 돈을 이웃에서 융통	부인참여점수	2.33	3.06	3.15	2.93
	공동참여점수	2.0	1.53	1.41	1.45

「공동 참여점수」는 연령별로 뚜렷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연령이 젊을수록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비율이 높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단독결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 부녀자의 의사 결정 참여도를 보면 무학의 부인층을 제외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의사 결정 참여도 역시 높아진다. 무학의 부인층이 부인 국졸학력에 비해 의사 결정권이 높은 것은 학력보다는 '연령'이라는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무학의 부인들은 주로 50세 이상 연령층에 해당하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령이 많을수록 발언권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예금과 공제 그리고 농협대출은 무학의 부인이 가장 낮은데 이것은 제도적인 기관과의 접촉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학력이 요구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학력은 「공동 참여점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 5-4)에 따르면 학력이 높을수록 「공동 참여점수」가 높아서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4 금전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점수(학력별)

단위 : 점

구 분		무학	국졸	중졸	고졸이상
돈의 사용계획 수립	부인참여점수	2.36	2.27	2.71	2.33
	공동참여점수	1.66	1.66	1.86	2.0
예금(종류·금액·예금기관에 대한 결정)	부인참여점수	2.26	2.20	2.71	2.50
	공동참여점수	1.68	1.66	1.86	2.0
공제·보험의 가입	부인참여점수	2.21	2.09	2.71	2.25
	공동참여점수	1.66	1.64	1.86	2.0
농협·은행등에서 대출받기	부인참여점수	2.09	2.07	2.29	2.33
	공동참여점수	1.60	1.64	2.0	2.0
큰 돈을 이웃에서 빌리기	부인참여점수	2.21	2.05	2.71	2.33
	공동참여점수	1.72	1.65	1.86	1.67
소액의 돈을 이웃에서 빌리기	부인참여점수	3.04	2.91	2.71	3.00
	공동참여점수	1.45	1.43	1.86	1.25

표 5-5 금전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점수(영농규모별)

단위 : 점

구 분		0.5ha 미만	0.5 ~1.0ha	1.0 ~1.5ha	1.5 ~2.0ha	2.0ha 이상
돈의 사용계획 수립	부인참여점수	2.39	2.53	2.27	1.80	2.20
	공동참여점수	1.70	1.62	1.53	1.60	1.93
예금(종류·금액·예금기관에 대한 결정)	부인참여점수	2.41	2.40	1.94	1.80	2.13
	공동참여점수	1.75	1.63	1.56	1.60	1.87
공제·보험의 가입	부인참여점수	2.25	2.34	1.94	1.80	2.13
	공동참여점수	1.72	1.60	1.63	1.60	1.87
농협·은행등에서 대출받기	부인참여점수	2.09	2.23	1.87	1.60	2.13
	공동참여점수	1.69	1.60	1.53	1.40	1.87
큰 돈을 이웃에서 빌리기	부인참여점수	2.19	2.31	1.87	1.75	2.20
	공동참여점수	1.81	1.60	1.53	1.50	1.93
소액의 돈을 이웃에서 빌리기	부인참여점수	2.84	2.97	3.00	2.20	3.47
	공동참여점수	1.56	1.46	1.40	1.40	1.40

영농규모별로 살펴보면(표 5-5) 영농규모가 부인의 의사 결정 참여도와 부부의 공동결정 혹은 단독결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생활자재의 구입

생활자재의 구입에서도 「식료품·의복 등 일상용품 구입」과 「내구소비재의 구입」으로 나누어서 살펴 보았다.

(표 5-6)에 따르면 「식료품·옷가지 등 일상용품의 구입」에 있어서는 65.4%가 거의 부인이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한 반면, 24.3%는 부인이 주가 되어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부인의 재량권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소비용품 구입에 관한 「부인 참여점수」는 3.52, 「공동 참여점수」가 1.29로서 부인의 결정권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부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내구소비재의 구입」에서는 부인의 일방적인 결정은 29.8%이었으나

표 5-6 생활물자 구입에 관한 의사결정

단위 : %, 점

의사결정항목 / 의사결정방법	식료품·옷가지등 일상용품의 구입	내구소비재의 구 입
거의 부인 혼자 결정	65.4	29.8
부인이 주가 되어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	24.3	40.4
남편이 주가 되어 부인과 상의해서 결정	4.7	15.4
거의 남편 혼자 결정	4.7	6.7
기 타	0.9	7.7
계	100.0	100.0
부 인 참 여 점 수	3.52	3.01
공 동 참 여 점 수	1.29	1.06

표 5-7 생활물자 구입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점수

단위 : 점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식료품·옷가지 등 일상용품의 구입	부인참여점수	3.83	3.56	3.70	3.41
	공동참여점수	1.17	1.56	1.30	1.31
내구소비재의 구입	부인참여점수	2.50	3.07	3.15	2.98
	공동참여점수	2.0	1.64	1.75	1.52

구 분		0.5ha 미 만	0.5~1.0ha	1.0~1.5ha	1.5~2.0ha	2.0ha 이 상
식료품·옷가지등 일상용품의 구입	부인참여점수	3.58	3.56	3.47	2.86	3.67
	공동참여점수	1.27	1.24	1.29	1.57	1.33
내구소비재 구입	부인참여점수	2.96	3.06	3.00	2.40	3.20
	공동참여점수	1.59	1.52	1.62	1.80	1.73

구 분		무 학	국 졸	중 졸	고 졸
식료품·옷가지등 일상용품의 구입	부인참여점수	3.52	3.48	3.57	3.75
	공동참여점수	1.29	1.28	1.43	1.25
내구소비재의 구입	부인참여점수	3.20	2.83	3.0	2.75
	공동참여점수	1.52	1.62	1.80	2.0

부인이 주가 되어 남편과 상의하는 비율이 40.4%로 높게 나타났다. 내구소비재의 경우는 일상소비용품의 경우보다는 남편의 의사 결정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4년의 조사결과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1984년에는 남편의 재량권과 부인의 재량권이 거의 비슷한 정도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여성의 재량권이 더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공동 참여점수」를 보면 1984년에는 1.67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부인참여점수」는 2.38로서 일상소비재의 구입과는 달리 남편의 의사결정권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부인 참여점수」가 3.01로 일상용품구입보다는 낮았지만 부인의 의사결정권이 1984년에 비해 신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령, 학력별로 생활용품구입에 관한 의사결정(표 5-7)을 살펴보면 일상소비용품의 구입은 연령과 학력이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구소비재의 구입에는 20대가 부인의 참여가 가장 낮았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부인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농규모는 일상소비용품의 구입과 내구소비재 구입에 대한 부인의 의사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결정, 단독결정 여부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자녀교육 문제

자녀교육에 관한 의사결정(표 5-8)은 부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15.6%, 부인이 주가되어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비율은 26.0%였다. 그러나 남편의 일방적인 결정이 9.4%, 남편이 주가되어 부인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40.6%로서 부인의 결정권이 약간 남편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교육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부인이나 남편의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상의한 후에 결정하는 비율이 높다. 즉 「부인 참여점수」가 2.52, 「공동 참여점수」가 1.63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부부가

표 5-8 자녀교육에 관한 의사결정

단위 : %, 점

의 사 결 정 방 식	(%)
거의 부인 혼자 결정	15.6
부인이 주가 되어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	26.0
남편이 주가되어 부인과 상의해서 결정	40.6
거의 남편 혼자 결정	9.4
기 타	8.4
계	100.0
부 인 참 여 점 수	2.52
공 동 참 여 점 수	1.63

표 5-9 자녀교육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점수

단위 : 점

구 분 \ 년 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부 인 참 여 점 수	2.67	2.87	2.80	2.31
공 동 참 여 점 수	2.0	1.87	1.68	1.69

구 분 \ 학 력	무 학	국 졸	중 졸	고 졸이상
부 인 참 여 점 수	2.50	2.49	2.83	2.75
공 동 참 여 점 수	1.63	1.78	1.83	2.0

구 분 \ 영농규모	1.5ha 미 만	0.5～1.0ha	1.0～1.5ha	1.5～2.0ha	2.0ha 이 상
부 인 참 여 점 수	2.73	2.40	2.38	2.00	2.71
공 동 참 여 점 수	1.77	1.60	1.77	1.80	1.86

상의해서 결정하는 비율이 높고 그 주도권은 남편에게 있음을 나타낸다. 자녀교육문제에 관한 의사 결정은 역할 분담에 따르는 의사 결정권의 분화가 명확한 도시가족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도·농간을 막론하고 자녀교육의 중요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 학력, 영농규모별로 자녀교육문제에 관한 부인의 의사 결정권은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다만 고졸 이상의 고학력층의 부인이 타학력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9).

그러나 「공동 참여점수」는 연령·학력 모두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자녀교육문제를 상의해서 결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 영농의사 결정과 부인의 참여도

농촌 여성의 역할 변화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노동분업의 관점에서 볼 때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농업노동에 여성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영농종사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이미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0%의 여성이 「다른 가족과 똑같이」 일하거나 또는 「취업주부로서 전적으로 농사를 맡아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력 제공의 측면에서 부인들의 참여는 크게 늘어났으나 그들이 영농과정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신장되고 있는가? 다시 말해 의사 결정권의 측면에서는 그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가를 영농과정에 따라 영농계획의 수립, 품종의 선택, 영농자재 구입, 농산물 판매, 농지의 구입과 매각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다.

가. 영농계획의 수립

「영농계획의 수립」에서는 모내기, 추수 등 농사일정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살펴 보았다. 「부인 참여점수」는 1.93으로서 부인의 영향력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즉, 농사시기를 부인이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농가는 5.6%에 불과했다. 그러나 「공동 참여점수」가 1.61로 나타남으로써 남편의 일방적인 결정에 비해 부부가 상의한 후에 결정하는 농가 비율

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10).

연령, 학력별로 농사시기 결정에 관한 부인의 의사결정 참여도와 공동결정 여부는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5-11). 1984년 조사결과에서는 다만 20대 연령층의 부인의 의사결정권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표 5-10 농사일정에 관한 의사결정

단위 : %, 점

의 사 결 정 방 식	(%)
거의 부인 혼자 결정	5.6
부인이 주가 되어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	11.2
남편이 주가되어 부인과 상의해서 결정	47.7
거의 남편 혼자 결정	29.0
기 타	6.5
계	100
부 인 참 여 점 수	1.93
공 동 참 여 점 수	1.61

표 5-11 농사일정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점수

단위 : 점

구 분 \ 년 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부 인 참 여 점 수	1.80	2.31	1.77	1.89
공 동 참 여 점 수	1.60	1.81	1.50	1.63

구 분 \ 학 력	무 학	국 졸	중 졸	고졸이상
부 인 참 여 점 수	1.91	1.80	2.83	1.50
공 동 참 여 점 수	1.60	1.67	1.71	1.50

구 분 \ 영농규모	0.5 ha 미 만	0.5~ 1.0 ha	1.0~ 1.5 ha	1.5~ 2.0 ha	2.0 ha 이 상
부 인 참 여 점 수	2.10	1.94	1.79	1.71	1.79
공 동 참 여 점 수	1.68	1.59	1.50	1.71	1.71

나타나 이는 그들이 주로 보조노동력으로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 바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20대의 부인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40대 부인의 참여도 역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특성상 논농사의 비중이 큰 지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령별 특성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영농규모 역시 부인의 농사시기 결정 참여도와 공동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4년의 조사결과와 이번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1984년에 부인의 의사 결정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부인이 주로 결정한다」는 응답을 포함해서 생각하면 거의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나. 품종의 선택

품종의 선택에서는 4.8%의 부인만이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한 반면, 11.4%가 부인이 주가되어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부인의 의사 결정권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1.4%는 남편이 거의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주작물에 대한 품종의 선택은 주로 남편의 결정사항임을 알 수 있다. 즉, 볍씨나 주작물에 대한 품종 선택에 있어서 「부인 참여점수」는 1.89로 극히 낮으며, 「공동참여점수」 역시 1.58로 다른 영농의사 결정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품종의 선택이 오랜 경험과 기술을 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표 5－12).

이상의 결과는 영농기술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대한 부인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서는 따로 조사되지 않았으나 참고로 1984년의 조사내용 중에서 「텃밭에 심을 품종의 선택」에 대한 의사 결정 참여도를 보면 주작물에 대한 품종 선택시의 의사 결정 참여도와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작물의 품종 선택에 대한 의사 결정의 부

인 참여도는 4.8%만의 부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한 반면, 「텃밭에 심을 품종의 선택」에서는 24.9%의 부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3.5%가 부인이 주가되어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부인의 의사 결정권이 남편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논 농사보다는 밭 농사에 부인들의 참여도가 높다는

표 5-12 품종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

단위 : %, 점

의 사 결 정 방 식	(%)
거의 부인 혼자 결정	4.8
부인이 주가 되어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	11.4
남편이 주가되어 부인과 상의해서 결정	45.7
거의 남편 혼자 결정	31.4
기 타	6.7
계	100.0
부 인 참 여 점 수	1.89
공 동 참 여 점 수	1.58

표 5-13 품종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점수

단위 : 점

구 분 \ 년 령	20대	30대	40대	50대
부 인 참 여 점 수	1.75	2.06	1.78	1.89
공 동 참 여 점 수	1.75	1.75	1.52	1.60

구 분 \ 학 력	무 학	국 졸	중 졸	고졸이상
부 인 참 여 점 수	1.88	1.82	2.57	1.67
공 동 참 여 점 수	1.56	1.66	1.71	1.67

구 분 \ 영농규모	0.5 ha 미 만	0.5~1.0ha	10~1.5ha	1.5~2.0ha	2.0ha 이 상
부 인 참 여 점 수	2.10	1.88	1.64	1.71	1.80
공 동 참 여 점 수	1.69	1.52	1.50	1.71	1.73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미작 중심의 영농에서 밭 작물의 재배는 자가소비를 위한 부식 마련에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밭 작물의 재배는 가사노동의 연장으로서 부인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텃밭에 심을 야채나 과일의 품종 선택은 부인의 재량권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품종 선택의 의사 결정에 있어 연령별 부인의 참여도와 공동참여도는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30대 부인의 「부인 참여점수」는 다른 연령층의 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그들이 영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표 5-13).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부인이 의사 결정 참여도가 가장 높았다. 이것은 학력이라는 요인이 연령이라는 변수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영농규모별로 품종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은 「부인의 참여도」와 「공동참여도」 모두 일관성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영농규모가 품종 선택의 의사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영농자재의 구입

영농자재의 구입은 부인의 일방적인 결정이 6.5%, 부인이 주가되어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농가가 10.3%로서 부인의 의사 결정권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32.7%가 거의 남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부인 참여점수」 역시 1.90으로 매우 낮으며, 「공동 참여점수」도 1.58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5-14).

영농자재 구입에 관한 연령별 의사 결정에서도 30대 부인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시 30대에서 적극적으로 영농에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표 5-15).

학력별로는 품종 선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졸부인의 의사 결정 참여도가 가장 높았다.

1984년 조사에서는 영농자재를 비료·농약·소농기구의 구입과 대농기

표 5-14 영농자재 구입에 관한 의사결정

단위 : %, 점

의 사 결 정 방 식	(%)
거의 부인 혼자 결정	6.5
부인이 주가 되어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	10.3
남편이 주가되어 부인과 상의해서 결정	43.0
거의 남편 혼자 결정	32.7
기 타	7.5
계	100.0
부 인 참 여 점 수	1.90
공 동 참 여 점 수	1.58

표 5-15 영농자재 구입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점수(연령별)

단위 : 점

구 분 \ 년 령	20대	30대	40대	50대
부 인 참 여 점 수	1.60	2.13	1.82	1.89
공 동 참 여 점 수	1.60	1.69	1.50	1.57

구 분 \ 학 력	무 학	국 졸	중 졸	고졸이상
부 인 참 여 점 수	1.93	1.80	2.57	1.50
공 동 참 여 점 수	1.55	1.60	2.71	1.50

구 분 \ 영농규모	0.5 ha 미 만	0.5~ 1.0 ha	10~ 1.5 ha	1.5~ 2.0 ha	2.0 ha 이 상
부 인 참 여 점 수	2.06	1.97	1.50	1.86	1.79
공 동 참 여 점 수	1.68	1.45	1.43	1.71	1.71

의 구입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는 이번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비료·농약·소농기구의 구입에 관한 의사결정이 대농기구 구입시보다 부인의 참여도가 높았다. 그리고 본조사와는 달리 연령이 높

을수록 농업노동의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영농관련 의사결정에서도 참여도가 높았다.

라. 노동력의 조달

노동력 조달에 관한 의사 결정은 9.4%가 「거의 부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했으며, 12.3%가 「부인이 주가되어 남편과 상의」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노동력 조달에서도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참여가 크지만, 영농 참여의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비교적 부인의 참여가 높은 편이다. 이것은 부인들의 농사참여가 증대되어 품앗이나 농업노동자의 형태로 농사에 참여하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노동력 조달, 특히 부녀자들을 동원하는 문제를 부인들이 해결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표 5-16).

노동력 조달에 부인들의 참여가 증대된 것은 1984년 조사자료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당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노동력 조달에 관한 의사 결정은 24.9%가 거의 부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했으며, 23.5%가 「부인이 주가되어 남편과 상의」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부인이 남편보다 노동력 조달문제를 해결하는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의 노동력 조달에 관한 「부인 참여점수」는 2.77이며 「공동 참여점수」는 1.49로 부인이 일방적으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가 1984년도에 비해서 여성의 참여도가 비교적 낮게 나온 것은 조사지역중 수도작이 주가 되어 있는 2개 지역 (도시근교, 평야)이 기계화가 진전되어 작업의 많은 부분을 기계작업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을 아울러 생각할 때 여성의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경영형태에서는 노동력 조달에 관한 부인의 의사 결정 참여가 높으리라는 점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작목의 품종 선택이나 비료, 농약, 농기구의 구입과 같이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영농의사 결정에는 부인

들의 의사 결정 참여도가 매우 낮으며 공동으로 결정하는 비율 역시 낮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농업경영 전반에 걸쳐 남편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 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동"과 관련된 사항들에서는 부인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을뿐만 아니라 부부가 상

표 5-16 노동력 조달에 관한 의사결정

단위 : %, 점

의 사 결 정 방 식	(%)
거의 부인 혼자 결정	9.4
부인이 주가 되어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	12.3
남편이 주가되어 부인과 상의해서 결정	42.5
거의 남편 혼자 결정	29.3
기 타	6.5
계	100.0
부 인 참 여 점 수	2.02
공 동 참 여 점 수	1.63

표 5-17 노동력 조달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점수

단위 : 점

구 분 \ 년 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부 인 참 여 점 수	3.0	2.38	1.87	1.93
공 동 참 여 점 수	1.67	1.81	1.48	1.56

구 분 \ 학 력	무 학	국 졸	중 졸	고졸이상
부 인 참 여 점 수	2.02	1.86	2.86	1.67
공 동 참 여 점 수	1.51	1.67	1.57	1.67

구 분 \ 영농규모	0.5 ha 미 만	0.5~ 1.0 ha	10~ 1.5 ha	1.5~ 2.0 ha	2.0 ha 이 상
부 인 참 여 점 수	2.17	1.97	2.07	2.00	1.80
공 동 참 여 점 수	1.67	1.50	1.50	1.50	1.73

의해서 결정하는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노동력 조달에 관한 부인의 의사 결정 참여도를 살펴보면 30대에서 의사 결정 참여도가 높았으며, 남편과의 공동참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17).

학력별로는 중졸 부인이 의사 결정 참여도가 높고 「공동 참여점수」역시 높았으며, 학력이 의사 결정 참여에 작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마. 농산물 판매

농산물의 판매는 주곡인 쌀, 보리, 그리고 자가소비가 아닌 시장판매를 위한 상업적 작목들의 판매로서 조사결과를 보면 부인의 단독결정이 6.7%, 부인이 주가되어 남편과 상의한다는 응답이 12.4%에 불과해 부인의 참여도가 극히 낮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부인 참여점수」가 1.98, 그리고 남편과 「공동 참여점수」가 1.60으로 나타남으로써 남편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18).

연령별로는 다른 영농의사 결정과 마찬가지로 30대의 연령에서 부인의 의사 결정 참여도가 높았으며, 남편과의 공동 참여점수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표 5-19).

영농규모별로는 0.5ha 미만의 영세농가에서 부인의 의사 결정 참여가 높았으며, 남편과의 공동 참여점수는 0.5~1.5ha 규모의 중소농층 농가에서 낮게 나타났다.

표 5-18 농산물 판매에 관한 의사결정

단위 : %, 점

의 사 결 정 방 식	(%)
거의 부인 혼자 결정	6.7
부인이 주가 되어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	12.4
남편이 주가되어 부인과 상의해서 결정	46.7
거의 남편 혼자 결정	27.6
기 타	6.6
계	100.0
부 인 참 여 점 수	1.98
공 동 참 여 점 수	1.60

표 5-19 농산물 판매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점수

단위 : 점

구 분 \ 년 령	20대	30대	40대	50대
부 인 참 여 점 수	1.75	2.19	1.82	2.00
공 동 참 여 점 수	1.75	1.81	1.55	1.61

구 분 \ 학 력	무 학	국 졸	중 졸	고졸이상
부 인 참 여 점 수	2.07	1.84	2.57	1.50
공 동 참 여 점 수	1.61	1.66	1.71	1.50

구 분 \ 영농규모	0.5 ha 미 만	0.5~ 1.0 ha	10~ 1.5 ha	1.5~ 2.0 ha	2.0 ha 이 상
부 인 참 여 점 수	2.17	2.03	1.79	1.71	1.79
공 동 참 여 점 수	1.73	1.58	1.43	1.71	1.71

바. 농지의 구입과 매각

농지는 농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서 농지에 관한 의사 결정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농지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란 점에서 농지의

표 5-20 농지 구입과 매각에 관한 의사결정

단위 : %, 점

의 사 결 정 방 식	(%)
거의 부인 혼자 결정	4.0
부인이 주가 되어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	7.9
남편이 주가되어 부인과 상의해서 결정	46.5
거의 남편 혼자 결정	32.7
기 타	8.9
계	100.0
부 인 참 여 점 수	1.82
공 동 참 여 점 수	1.29

표 5-21 농지 구입과 매각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점수

단위 : 점

구 분 \ 년 령	20대	30대	40대	50대
부 인 참 여 점 수	1.50	1.93	1.61	1.88
공 동 참 여 점 수	1.50	1.67	1.57	1.60

구 분 \ 학 력	무 학	국 졸	중 졸	고졸이상
부 인 참 여 점 수	1.93	1.67	2.33	1.67
공 동 참 여 점 수	1.60	1.57	1.83	1.67

구 분 \ 영농규모	0.5 ha 미 만	0.5～1.0 ha	1.0～1.5 ha	1.5～2.0 ha	2.0 ha 이 상
부 인 참 여 점 수	2.04	1.88	1.50	1.50	1.73
공 동 참 여 점 수	1.68	1.56	1.43	1.50	1.73

구입과 매각에 관한 의사 결정에의 참여 여부는 다른 영농의사 결정에서의 영향력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조사결과를 보면 부인의 일방적인 결정이 4.0%, 부인이 주가되어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7.9%로 나타남으로써 농지의 구입과 매각시에 부인이 주도권을 가지는 비율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20).

이것은 현재 부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농경지의 소유상황에서도 부인의 영향력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즉, 조사지역에서 부인명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는 121호중 17호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아직까지 농촌 가족제도에서 가부장적 가치관과 그 가장 큰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속제에서 부인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농지의 구입과 매각에 있어서도 다른 영농의사 결정과 마찬가지로 30대 부인의 의사 결정 참여도가 높으며, 학력은 중졸 부인의 의사결정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영농규모별로는 0.5ha 미만의 영세농가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표 5－21).

5. 농촌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유형

지금까지 가사와 영농에 관한 의사 결정방법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항목별로 부인의 의사 결정 참여도와 부부의 단독결정 혹은 공동결정 여부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그 결과를 「부인 참여점수」와 「공동 참여점수」를 중심으로 유형화해 보고, 여성이 의사결정사항에 따라 어떻게 결정과정에 참여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표 5-22)는 「부인 참여점수」가 높은 순으로 의사결정 사항을 나열한 것이며, 「부인 참여점수」의 중간점 2.5와 「공동 참여점수」의 중간점 1.5를 기준으로 4가지로 유형화해 보았다.

첫째 A형은 부녀자의 의사결정 참여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단독결정권이 높아서 부녀자의 자유재량권이 높은 항목들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표 5-22 **항목별 의사결정유형, 1992**

항 목	부여참여점수	공동참여점수	유 형
① 식료품·옷가지 등 구입	3.52	1.29	A 부인 재량형
② 내구재 구입	3.01	1.60	
③ 적은 돈을 이웃에서서 융통	2.97	1.47	
④ 자녀의 교육과 진학문제	2.52	1.73	B 부인 주도적 상의형
⑤ 돈의 지출계획 세우기	2.36	1.68	C 남편 주도적 상의형
⑥ 예금에 관한 결정	2.26	1.69	
⑦ 공제·보험의 가입	2.19	1.68	
⑧ 큰 돈을 이웃에게 융통	2.09	1.65	
⑨ 농협·은행에서 대출	2.09	1.65	
⑩ 노동력 조달	2.02	1.59	
⑪ 주요 작물의 대량 판매	1.98	1.63	
⑫ 농사시기 결정	1.93	1.63	
⑬ 농용자재 구입	1.90	1.58	
⑭ 주요작물의 품종 선택	1.89	1.61	
⑮ 농지 구입과 매각	1.82	1.60	

항목은 식료품, 옷가지 등 일상용품 구입, 냉장고 등, 내구재의 구입과 소액의 금전관리와 지출에 관한 것이었다. 이 중 내구재의 구입은 부인의 재량권이 크지만 다른 두 항목에 비해 상의형에 가깝다.

둘째로 B형과 C형은 부인이나 남편이 단독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비율이 높은 항목들로서 B형은 부인이 주도권을 가진 반면 C형은 남편이 주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B형을 「부인주도적 상의형」, C형은 「남편주도적 상의형」이라고 한다면 (표 5-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B형에 해당하는 자녀교육 문제를 제외하고는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경우에도 남편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C형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지출계획의 수립과 제도적인 기관과의 접촉을 필요로 하는 예금·보험의 가입과 같은 중요한 금전관리, 자녀교육문제, 영농에 관한 전반적인 의사 결정으로 남편이 주도권을 가지고 부인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미 지적했던 바와 같이 농촌가족의 특징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남편의 결정권이 부인보다 우위에 있음을 나타낸다(표 5-23 참조).

세째로 D형은 1984년 조사에서 구분된 유형으로 부인의 의사결정 참여도가 가장 낮고 공동참여도 역시 낮아서 남편이 일방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진 항목들이다. 가사 가운데 농협과 같은 제도적 기관으로부터의 차입, 그리고 구체적인 농업노동과 관련된 농사일정의 결정과 노동력 조달을 제외한 영농 전반에 걸쳐 남편이 일방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4년 조사에서는 (표 5-23)과 같이 A~D형까지 4가지 의사유형으로 구분되어 본 조사에서 남편주도의 상의형으로 나타난 영농관련 의사결정이 거의 남편 재량형으로 구분되었다. 이같은 조사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영농부문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다소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84년 조사에서는 여성의 재량권이 큰 것으로 나타났던 노동력 조달에 관한 사항이 본 조사에서는 남편주도의 상의형으로 구분되었다.

표 5-23 항목별 의사결정유형, 1984

단위 : 점

항 목	일방참여점수	공동참여점수	구 분
① 식료품·옷가지등 구입	3.52	1.29	
② 적은 돈을 이웃에서 빌리기	2.97	1.47	A부인재량형
③ 소량의 곡식·야채·과일·과일의 판매	2.99	1.47	
④ 텃밭에 심을 품종의 선택	2.76	1.42	
⑤ 노동력의 조달	2.02	1.59	B 부인주도적 상의형
⑥ 내구재 구입	3.01	1.60	
⑦ 예금에 관한 결정	2.26	1.69	
⑧ 큰 돈 이웃에서 빌리기	2.09	1.65	
⑨ 돈의 사용계획 세우기	2.36	1.68	C 남편주도적
⑩ 자녀의 교육과 진학문제	2.52	1.73	상의형
⑪ 공제·보험의 가입	2.19	1.68	
⑫ 농사일 할 시기의 결정	1.93	1.63	
⑬ 비료·농약·소농기구의 구입	1.90	1.58	
⑭ 축산물의 구입	1.75	1.53	
⑮ 주요작물의 대량판매	1.98	1.63	
⑯ 농협·은행에서 대출	2.09	1.65	D 남편재량형
⑰ 볍씨·주요작물의 품종선택	1.89	1.61	
⑱ 농지의 구입과 매각	1.82	1.60	
⑲ 대농기계의 구입	1.65	1.45	

자료: 농협, 「전게서」.

이는 1984년 당시는 노동력 부족으로 여성의 영농참여가 증대되어 노동력조달에 관한 의사결정에 여성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1992년 조사에서는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나 조사지역에서는 벼농사의 농기계위탁작업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력에 관한 의사결정부분이 남편주도형의 상의형으로 되어 여성의 참여가 오히려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는 부인들이 농업에 제공하는 노동력에 비해 의사결정권은 여전히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영농참여 증대에

따라 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도는 다소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노동에 참여하는 정도별로 영농의사 결정의 참여도를 보면 (표 5-24)에서와 같이 보조 노동력으로 참여하는 부인이 영농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부인 참여점수」의 평균은 1.72, 주노동력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인의 그것은 2.18로 나타남으로써 농업노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의사결정에서 부인이 차지하는 발언권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노동력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노동력 제공자와 농사일을 주도해 가는 부녀자의 의사결정 참여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 조사농가부인 중 주종사자가 부인인 경우, 「부인 참여점수」는 2.55이고 다른 가족과 같은 정도로 영농에 참여하는 경우는 1.80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앞으로 농가의 농외취업의 증대와 더불어 부인의 영농참여가 보다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될 때, 부인들에 의해 농사가 주도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비해서 부인이 단순한 노동력 제공자로서가 아니라 농업기술과 지식을 갖춤으로써 영농의사 결정에서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표 5-24 농업노동 참여도별 영농의사결정 참여점수

단위: 점

농업노동참여도 / 의사결정참여점수	보조노동력으로 참여	주노동력으로 참여		
			다른가족과같은정도	부인이 주종사자
부인참여점수	1.72	2.18	1.80	2.55
공동참여점수	1.64	1.65	1.56	1.73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우리 나라의 농촌은 1970년대 이후 산업화과정에서 많은 청장년의 농업노동력이 도시로 유출됨에 따라 농업노동력의 부족을 심각하게 겪게 되었으며, 부족된 농업노동력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농촌 여성의 영농 참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1980년대 이후 계속되는 농가경제의 악화로 농촌 여성노동력은 농업부문에 더욱 투입되어 1990년 현재 우리나라 농림업취업자의 45%가 여성 취업자이며, 농가노동 투하량의 47.3%를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 인력부족에 따른 농촌 여성의 영농 참여는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의 농업형태가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소농형태라는데 기인한다. 이러한 구조는 농촌의 노동력 부족에 따라 가족노동력의 비중을 더욱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농가부인의 농업노동 참여를 증대시키게 된 것이다.

오늘날 농촌 여성의 위치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첫째는, 여성의 노동부담이 과중하며 더욱 증대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 농가경제의 악화, 그리고 농업노동력의 질적 변화로 여성의 노동 투하가 증대되고 있다.

둘째는, 농촌사회의 가부장제적 가족제도하에서 여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데 따른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노동으로 그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이다. 농번기 농업노동의 참여는 가사노동을 위축시켜 주부로서의 역할인 농가의 재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농가생활의 유지와 가족문제의 발생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부분이다.

세째는, 농촌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불일치를 들 수 있다. 농업노동에 많은 시간을 투하하면서도 농가경영의 주체라는 면에서는 농촌 여성은 소외되어 있으며, 영농에 관한 의사 결정과정에서도 농업 보조자로서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 기술 수준도 향상되지 못하여 농업노동생산성은 남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상과 같은 농촌 여성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4개 마을의 사례조사를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되었다. 사례조사자료는 영농 참여에 따른 농촌 여성의 의식 변화와 그에 따른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조사지역의 농가부인은 대부분 영농에 참여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농업 취업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여성 자신이 영농 참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농사 보조자라는 인식을 탈피하여 농업을 직업으로 인식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농업의 미래에 대한 가치관은 대체로 낙관적이지는 못하였다. 거의 전체 응답자가 농업은 노력에 대한 대가가 미흡하고 타직종에 비해 수입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농업소득이 보장되지 않고는 농업이 긍정적으로 인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농촌 여성의 농업관은 1984년의 조사결과에 비해 더 비관적으로 나타나 직업으로서 매력을 갖기에는 농업과 농촌의 여건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업노동력이 있는 젊은 농가부인 중에는 적극적인 영농의욕을 보이는 여성들도 있었다. 특히, 농업이 갖는 직업으로서의 자유로움과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30대 연령

층의 농가부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영농활동이 기대된다. 반면 농업의 단점으로 노동의 과중과 노동의 강도가 지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면 여성의 영농 참여는 좀더 적극적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영농에 있어서는 노동의 성별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여성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작업과 곤란한 작업이 구분되는 것으로 여성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경운, 정지, 운반과 같은 작업은 여성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작업인 반면 밭 농사의 대부분 작업은 여성이 전담하는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여성의 참여도가 높은 작업을 기계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에도 불구하고 영농에 관한 의사 결정에서는 남성에 비해 낮은 참여도를 보였다. 그러나 1984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영농에 관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는 다소 증대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영농참여가 증대됨에 따라 경영주로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도 농촌인력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촌 여성의 영농 참여는 계속적으로 증대되리라고 전망된다. 여성이 단순노동을 제공하는 농사 보조자로부터 농업경영주로 지위가 상승되기 위해서는 여성스스로의 의식계발은 물론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의 농업노동을 사회적인 노동으로 평가하고, 이를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농촌 여성이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자 할 때 이를 제약하는 모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만 21세기 우리 나라 농업을 이끌어 갈 농업경영인으로서 여성 농민의 비젼도 제시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주숙,「한국농촌여성연구 —5개 부락 실태를 중심으로—」카톨릭농촌여성회, 1981.

김주숙, 농촌여성의 농업생산참여의 실태와 문제점,「농촌경제」1982.

김주숙, 농촌여성과 일 —그 체계와 보상,「한국여성과 일」이화여대출판부, 1986.

김주숙, 여성농민의 지위와 역할,「한국농업·농민문제연구」, 1988.

농협중앙회,「농촌부녀자의 의식과 역할」1984.

농촌진흥청,「농가주부의 생활시간분석」1988.

조옥라, 도시빈민가족과 농촌 영세빈농 가족의 비교,「한국가족론」1990.

조옥라, 농촌여성의 경제활동증가가 가족구조에 미친 영향,「한국의 사회와 역사」일지사, 1991.

최양부, 산업사회화 과정에서 한국농업의 성격변화와 과제, 현대사회와 가족, 아산사회복지재단.

한국여성개발원,「농촌여성의 건강실태에 관한 연구」1987.

한국여성개발원,「농촌여성의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1987.

한국여성개발원,「우리농촌과 여성」1990.

민경희, 농업노동력의 여성화 고령화 추세,「농민과 사회」한길사, 1991.

Sarah whatmore, Farming Women., University of Bristol, 1991.

정기환 외,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도시근교, 평야, 중간, 산간마을의 사회경제구조, 1989.

허장외,「농촌주민의 의식」가치관, 농경연, 1989.

김인숙, 농촌여성 노동의 화폐적 가치평가를 위한 일 연구,「대한가정학

회지」제29권2호, 1991.

김성수외, 농촌여성의 역할증대에 관한 연구,「농시논문집」, 1987.

김동일외,「한국 농촌주민의 삶의 질」, 농경연, 1982.

최은숙, 한국 농촌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한국농업교육학회지」20권 2호, 1988.

문옥표, 農村の經濟發展と女性の地位,「民族學研究」54卷3號, 1989.

이한기,「농촌가족내 부인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최은숙, 여성과 지역사회(Ⅱ) －농촌여성을 중심으로－,「현대사회와 여성」,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6.

김흥주, 현 단계 농업노동의 실태와 농민의 가족문제,「농촌사회」제2집, 1992.

農村生活綜合研究 センター, 野菜農家婦人の勞動と生活, 1992.

日本 農林省,「新しい農山漁村の女性 2001年に向けて」(農山漁村の女性に關する中長期 ビジョン懇談會報告書), 1992.

빈 면

연구보고 268

농촌여성의 의식변화와 역할에 관한 연구
충남지역 4개 마을을 중심으로

찍은날 1992. 12 펴낸날 1992. 12
발행인 허 신 행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 (1979. 5. 25)
찍은곳 東洋文化印刷株式會社 · 737-2101~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